



# 교사용 특별부록

## 2-1

교재 자료	CD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실전 단원 평가 [국어+국어 활동] 『국어』, 『국어 활동』 교과서에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단원별 핵심 문제를 뽑아 구성</li><li>·실전 단원 평가 [국어] 『국어』 교과서에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단원별 핵심 문제를 뽑아 구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단원 평가 평가에 자주 나오는 중요 문제로 구성</li><li>·서술형 평가 평가에 자주 나오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li><li>·중간·기말 평가 중간, 중간 이후, 전 범위 각 범위별 1회 제공</li></ul>

※ 선생님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비상교육 누리집([www.visang.com/book](http://www.visang.com/book) ➔ 학원선생님 ➔ 초등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고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또 돌아보고
“다시 노나 봐라.”	“왜 안 부르지?”

1 시 속 인물이 겪은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친구와 다투었다.
- ②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③ 친구에게 신발을 빌렸다.
- ④ 친구와 숨바꼭질을 하였다.
- ⑤ 부모님과 놀이동산에 갔다.

2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이 시를 읽으려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고 싶은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3~4

풀밭을 걸을 땐 발끝으로 걸어도 뒤꿈치로 걸어도 풀꽃에게 미안해	풀밭을 걸을 땐 내 발이 아기 새 발이면 참 좋겠다.
--	--

3 이 시를 읽으면 아이가 어떻게 걷는 장면이 떠오르는지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힘차게 걷는 장면
- ② 발끝으로 걷는 장면
- ③ 뒤꿈치로 걷는 장면
- ④ 아주 빠르게 걷는 장면
- ⑤ 풀꽃을 꺾으며 걷는 장면

4 시 속 아이가 문제 3번에서 답한 것과 같이 걸은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      )

- ① 새를 잡고 싶어서
- ② 풀꽃을 밟지 않으려고
- ③ 소리 나지 않게 걸으려고
- ④ 풀꽃에게 노래를 들려주려고
- ⑤ 풀밭 위를 걷는 것이 지루해서

5~6

꾸벅꾸벅  
졸고 있는  
동생에게 다가가

꺾어 온 강아지풀  
콧구멍에 간질간질

아무런 반응이 없네  
㉠ 어라, 이게 아닌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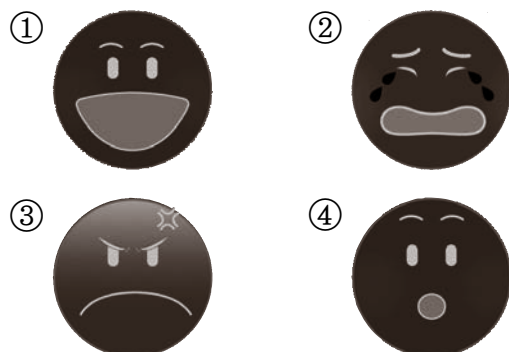
5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국어  
활동

- ① 강아지가 뛰노는 장면
- ② 동생이 채채기를 하는 장면
- ③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든 장면
- ④ 강아지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
- ⑤ 아이가 강아지풀을 동생의 코에 대는 장면

6 ㉠에 어울리는 시 속 인물의 표정은 무엇입니까? (      )

국어  
활동



7~9

㉠ 으르렁 드르렁  
드르르르 푸우-

아버지 콧속에서  
사자 한 마리  
울부짖고 있다.

㉔ 생쥐처럼 살금살금  
양말을 벗겨 드렸다.

7 ㉠은 어떤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     )

- ① 생쥐의 울음소리
- ② 호랑이의 울음소리
- ③ 아이가 기어가는 소리
- ④ 아버지께서 코를 고시는 소리
- ⑤ 아버지께서 아이를 꾸짖으시는 소리

**8** ㉞에 나타난 표현을 보고 인물의 마음이 어  
서술형  
논술형  
 떠할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9 이 시를 잘못 읽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도윤: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읽었어.

윤지: 아버지께서 코 고는 소리를 매우 크게 표현했어.

하민: 살금살금 다가가서 아버지의 양말  
을 벗겨 드리는 모습을 행동으로 표현  
하며 읽었어.

$$\left( \begin{array}{c} \text{ } \\ \text{ } \\ \text{ } \end{array} \right)$$

10~11

아, 아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으, 으  
점점 입이 다물어진다

이름 빼야 하는데

⑦ 눈물이 먼저  
쏟  
빠진다

10 ㉠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 )

- ① 이가 쏙 빠진다.
- ② 입이 다물어진다.
- ③ 이를 뺄 수 없다.
- ④ 아파서 눈물이 난다.
- ⑤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

**11** 시 속 아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두려운 마음      ② 미안한 마음  
③ 신나는 마음      ④ 무서운 마음  
⑤ 자랑스러운 마음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시를 소리 내  
어 읽는 것을   (이)라고 한다.

$$\left( \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1~3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고  
“다시 노나 봐라.”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또 돌아보고  
“왜 안 부르지?”』

1 ㉠『』 부분에는 인물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 )

- ① 친구가 부러운 마음
- ②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 ③ 친구에게 화가 난 마음
- ④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
- ⑤ 친구와 노는 것이 즐거운 마음

2 시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승리: 어제 친구와 숨바꼭질을 하며 재미 있게 놀았어.  
서윤: 주무시는 엄마 옆에서 혼자 책을 읽었던 경험이 떠올라.  
민서: 친구와 다툼 뒤에 내가 먼저 사과 하고 싶었는데 망설였던 적이 있어.

( )

3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이 시를 어떻게 읽고 싶은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4~6

풀밭을 걸을 땐  
발끝으로 걸어도  
뒤꿈치로 걸어도  
풀꽃에게 미안해

풀밭을 걸을 땐  
㉡내 발이  
아기 새 발이면  
참 좋겠다.

4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아이가 꽃을 심는 모습
- ② 아이가 풀밭에 물을 주는 모습
- ③ 아이가 아기 새 뒤를 쫓는 모습
- ④ 아이가 풀밭에서 뛰고 있는 모습
- ⑤ 아이가 조심조심 풀밭을 걷는 모습

5 시 속 인물이 ㉡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 일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6 ㉡에서 ‘아기 새 발’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작은 강아지 발
- ② 조그만 개미 발
- ③ 튼튼한 로봇 발
- ④ 폭신한 풍선 발
- ⑤ 가벼운 스펀지 발

7~9

으르렁 드르렁  
드르르르 푸우-

아버지 콧속에서  
사자 한 마리  
울부짖고 있다.

생쥐처럼 살금살금  
양말을 벗겨 드렸다.

7 아버지 콧속에 사자 한 마리가 있다고 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 )

- ① 아버지가 사자 꿈을 꾸고 있어서
- ② 아버지가 사자 흉내를 내고 있어서
- ③ 아버지 코가 사자 코와 비슷하게 생겨서
- ④ 아버지께서 사자처럼 무섭게 혼을 내셔서
- 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사자 울음소리처럼 매우 커서

8 시 속 아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아버지와 같이 놀고 싶다. ( )
- (2) 아버지의 양말을 깨끗이 빨아 드리고 싶다. ( )
- (3) 피곤한 아버지께서 편안히 주무시면 좋겠다. ( )

9 이 시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10~11

아, 아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으, 으  
점점 입이 다물어진다

이를 빼야 하는데  
눈물이 먼저  
쭙  
빠진다

10 시 속 인물은 어디에 있는지 쓰시오.

( )

11 시 속 인물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하여 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12 다음 시 속 인물의 마음을 바르게 말한 친구를 두 명 고르시오. ( )

딱지 따먹기 할 때  
만 아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딱지가 훌쩍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 ① 다율: 딱지를 선물받아서 기쁠 거야.
- ② 하연: 딱지에 맞아서 속상해하고 있어.
- ③ 지민: 자신의 딱지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어.
- ④ 은이: 딱지를 접는 것이 재미있어서 신날 거야.
- ⑤ 수현: 다른 친구가 딱지를 칠 때마다 조마조마해 하고 있어.

#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 2. 자신 있게 말해요

2학년

반

점수

이름

1~3



1 그림 ㉠의 여자아이는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 )

- ① 또박또박 말했다.
- ② 바른 자세로 발표했다.
- ③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 ④ 자신 있는 태도로 말했다.
- ⑤ 말하려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다.

2 그림 ㉠과 ㉡ 중 듣는 사람이 여자아이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그림 ( )

3 그림 ㉡의 여자아이와 같은 태도로 발표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4~6



4 남자아이는 무엇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지 쓰시오.

( )

5 이 그림에서 남자아이의 발표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허리를 숙이고 말했다.
- ②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 ③ 적은 내용만 보면서 말했다.
- ④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 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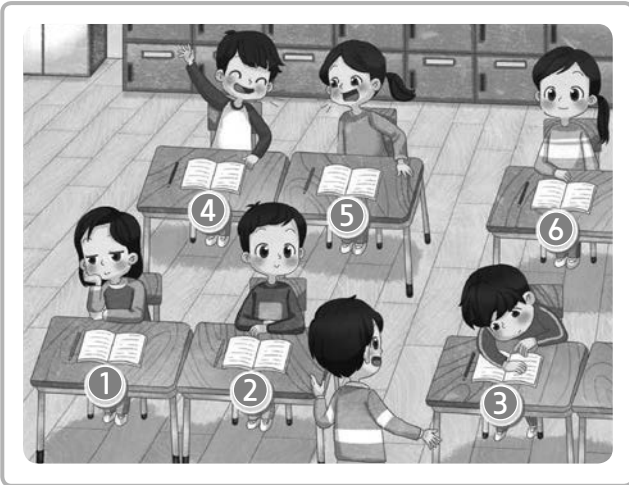
6 친구들이 남자아이에게 해 줄 말로 알맞은 것을 찾아 ○표를 하시오.

- (1)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 )
- (2)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 )
- (3)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발표해서 이해하기 쉬웠어. ( )

7 다음 중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모둠 이름 정하기
- ② 교실에서 지킬 점 말하기
- ③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하기
- ④ 현장 체험 학습 소감 발표하기
- 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일기로 쓰기

8~9



8 이 그림에서 바른 자세로 듣고 있는 친구를 모두 찾아 번호를 쓰시오.  
( )

9 ①번 친구에게 충고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턱을 괴지 않고 들으면 좋겠어.
- ② 질문은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하면 좋겠어.
- ③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들으면 좋겠어.
- ④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고 들으면 좋겠어.
- ⑤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을 보며 들으면 좋겠어.

10~11

가 평화롭던 동물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숲 한가운데에 넓은 찾길이 생긴 거예요. 그 바람에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겨 버렸어요.

나 고라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큰일이야. 이래서는 먹이를 구하러 갈 수가 없어.”

그러자 들고양이도 훌쩍이며 말했어요.  
“나는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어.”

다 다람쥐는 차가 썩썩 달리는 찾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10 동물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

- ① 마실 물이 모자란 것
- ② 차가 너무 밀리는 것
- ③ 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는 것
- ④ 마을에 사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진 것
- ⑤ 마을 밖으로 안전하게 나갈 수 없는 것

11 이 글을 읽고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12 다음은 무엇을 만드는 방법인지 쓰시오.

-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찾아 쓴다.
- 책에서 기억나는 그림을 간단히 그린다.

( )

1~3

“여러분,  
오늘은 링링이 발표할 차례예요.”  
심장이 쿵쿵쿵.  
온몸이 화끈화끈.  
숨이 킁킁 막히고,  
머릿속은 눈사람처럼 새하얘졌어요.  
‘그동안 발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입이 안 떨어지지?’  
링링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링링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채 더듬  
더듬 발표를 끝내 버렸어요.

1 링링은 발표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      )

- ① 슬픈 마음      ② 고마운 마음  
③ 궁금한 마음      ④ 긴장된 마음  
⑤ 즐거운 마음

2 링링의 발표를 듣고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      )

- ① 실감 나고 재미있다.  
② 링링이 발표를 참 잘했다.  
③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④ 링링이 내용을 쉽게 말해 주었다.  
⑤ 링링이 말하고자 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었다.

3 링링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는 말을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4~5

수의사가  
하는 일은?



1

수의사는 아픈 동물을 치료해 줍니다.



3

제 꿈은 수  
의사입니다.



2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네.



4

4 발표하는 남자아이의 꿈은 무엇입니까?

(      )

- ① 간호사      ② 의사  
③ 선생님      ④ 운동선수  
⑤ 아나운서

5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남자아이를 칭찬하는 말을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6 친구들 앞에서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거울을 보고 말한다.  
② 말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 본다.  
③ 친구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말한다.  
④ 말하기 전에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한다.  
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책을 읽어 본다.



**7** 자신이 발표를 잘했는지 확인할 때에 생각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눈은 듣는 사람을 바라보았는가?
- ②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였는가?
- ③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말했는가?
- ④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말했는가?
- 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는가?

**8~10**

**가** 평화롭던 동물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숲 한가운데에 넓은 찾길이 생긴 거예요. 그 바람에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겨 버렸어요.

**나** 고라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큰일이야. 이래서는 먹이를 구하러 갈 수가 없어.”  
그러자 들고양이도 훌쩍이며 말했어요.  
“나는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어.”  
두꺼비가 부럽다는 눈초리로 종달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들은 좋겠다. 훨훨 날아서 찾길을 넘어 갈 수 있으니까.”  
그러자 종달새가 머리를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 찾길 근처에서 낮게 날면 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휘말리기 쉽거든. 나도 위험할 뻔했다고.”

**8** 동물 마을에 생긴 일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겼다.
- ② 숲 한가운데에 넓은 찾길이 생겼다.
- ③ 고라니가 먹이를 구하러 갈 수 없게 되었다.
- ④ 들고양이가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 ⑤ 옆 마을 동물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9** 두꺼비가 새들을 부러워한 까닭을 쓰시오.  
(      )

**10** 이 글의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세 가지 고르시오. (      )

- ① 동물들이 살 집을 마련해 준다.
- ② 동물 마을에 찾길을 하나 더 만든다.
- ③ 자동차에 동물 감지 센서를 부착한다.
- ④ 낮게 나는 종달새가 위험하지 않게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 ⑤ 나무를 심어서 고라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충분히 준다.

**11** 친구들에게 소개할 책의 띠지에 넣을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책의 가격과 두께
- ② 책을 읽은 때와 곳
- ③ 책에서 기억나는 그림
- ④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
- ⑤ 책을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

**12** 책의 띠지를 만들고 싶은 책의 제목과 그 까닭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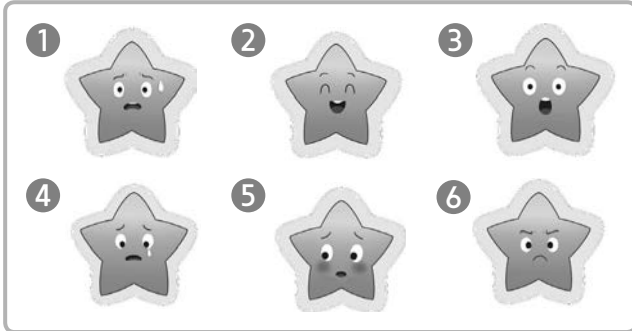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1~2



1 다음 문장에 어울리는 표정을 한 별은 누구인지 번호를 쓰시오.

새 옷을 선물받았다.

별 ( )

2 별 ③에 어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 )

- ① 슬퍼요.                      ② 화나요.  
③ 즐거워요.                ④ 놀라워요.  
⑤ 부끄러워요.

3~7

선생님은 월요일마다 친구들에게 기분을 물었어요. / 오늘은 테오에게 물었지요.

“테오야, 오늘은 기분이 어때니?”

“모르겠어요.”

테오가 작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테오에게 여동생이 생겼다던데?”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놀랐어요.

㉠ “아마 행복할 거야.” 에릭이 말했어요.

“내가 새 자전거를 선물받았을 때처럼 말이야.”

“어쩌면 질투가 날지도 몰라.” 릴리가 말했어요.

“상을 타 온 우리 언니가 칭찬받았을 때처럼 말이야.”

3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 )

- ① 시험 문제를 내신다.  
② 아이들을 칭찬해 주신다.  
③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 주신다.  
④ 친구들에게 기분을 물어보신다.  
⑤ 아이들이 앉는 자리를 바꾸신다.

4 테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 )

- ① 동생이 생겼다.  
② 선생님께 혼이 났다.  
③ 동생에게 선물을 받았다.  
④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다.  
⑤ 운동장에 세워 둔 테오의 자전거가 없어졌다.

5 ㉠과 같은 마음이 드는 상황을 한 가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6 릴리는 테오가 어떤 마음이 들 것이라고 하였는지 쓰시오.

( )

7 문제 6번에서 답한 것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무섭다.                      ② 샘난다.  
③ 긴장된다.                ④ 뿌듯하다.  
⑤ 행복하다.

8~10

“애들아, 잘 놀았어?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느라 힘들진 않았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방울토마토 삼 형제가 흔들흔들! 괜찮다고, 즐겁게 잘 놀고 있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애들아, 나는 오늘 좀 슬펐어. 친구들에게 너희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재현이는 토마토가 싫다고 하고, 영미는 공기놀이만 좋아하고……. 너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혼자라서 가끔 외롭거든.”

㉡“방울토마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까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비밀 친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8 학교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친구들과 방울토마토를 먹었다.
- ② 체육 시간에 철봉에 매달려 있었다.
- ③ 친구들과 방울토마토 이름을 지었다.
- ④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다가 싸웠다.
- ⑤ 친구들에게 방울토마토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관심이 없었다.

9 ㉠과 ㉡에서 ‘나’의 마음이 어떠할지 쓰시오.

㉠	(1)
㉡	(2)

10 이와 같은 글에서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 )

국어  
활동

□은/는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이란다.

- ① 기쁨      ② 사랑      ③ 신남
- ④ 뉘우침    ⑤ 포근함

12 다음 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보고, 인물의 마음이 어떠할지 쓰시오.



( )

13 다음 그림에서 ㉠은 어떤 마음을 담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 ① 반가운 마음      ② 궁금한 마음
- ③ 신기한 마음      ④ 지겨운 마음
- ⑤ 미안한 마음

1~3

〈마음을 나타내는 말 알아맞히기 놀이 방법〉

- 모둠에서 각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쪽지에 씁니다.
- 쓴 쪽지를 모아 놓고 한 명씩 쪽지를 고릅니다.
- 한 명씩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 쪽지의 말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 다른 친구들은 그 정지 동작이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표현한 것인지 알아맞힙니다.

1 이 놀이를 할 때 쪽지에 쓰기에 알맞지 않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놀아요.
- ② 뿌듯해요.
- ③ 속상해요.
- ④ 미안해요.
- ⑤ 실망스러워요.

2 친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정과 몸짓을 했습니다. 친구가 고른 쪽지에는 어떤 말이 쓰여 있었을지 쓰시오.  
( )



3 다음과 같은 표정과 동작에 알맞은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폴짝폴짝 뛰다.

- ① 밉다.
- ② 부럽다.
- ③ 즐겁다.
- ④ 속상하다.
- ⑤ 창피하다.

4~6

“테오에게 여동생이 생겼다던데?”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놀랐어요.

㉠ “아마 행복할 거야.” 에릭이 말했어요.

“내가 새 자전거를 선물받았을 때처럼 말아야.”

㉡ “어쩌면 질투가 날지도 몰라.” 릴리가 말했어요.

“상을 타 온 우리 언니가 칭찬받았을 때처럼 말아야.”

㉢ “두려울지도 몰라.” 아민이 말했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말아야.”

㉣ “슬플 거야.” 에이프릴이 말했어요.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처럼 말아야.”

4 테오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① 테오
- ② 아민
- ③ 에릭
- ④ 선생님
- ⑤ 에이프릴

5 ㉠~㉣ 중, 다음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친구가 나보다 달리기를 더 잘할 때

( )

6 테오처럼 동생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보기**

자랑스러운 기분일 거야.

내가 야구 시합에서 홈런을 쳤을 때처럼 말아야.

\_\_\_\_\_

\_\_\_\_\_



1~3



1 친구들은 어떤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 )

- ① 끝말잇기 놀이
- ② 주고받는 말놀이
- ③ 말 덧붙이기 놀이
- ④ 콩지 따기 말놀이
- ⑤ 첫 글자로 말 잇기 놀이

2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놀이를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앞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뒷사람에게 전한다.
- ② 한 사람이 물으면 다른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한다.
- ③ 앞사람이 말한 낱말의 끝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한다.
- ④ 앞사람이 말한 것과 비슷한 것을 떠올려 이어 말한다.
- ⑤ 첫 번째 사람이 말한 낱말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한다.

3 이 말놀이를 알맞게 이어 가려면 여자아이는 어떤 낱말을 말해야겠습니까?  
( )

- ① 배                      ② 일기                      ③ 사진
- ④ 음악                    ⑤ 도시락

4~6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작아  
작은 것은 아기  
아기는 귀여워  
귀여운 것은 곰 인형』  
곰 인형은   
포근하면 봄

4 이 말놀이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5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

- ① 길어                      ② 예뻐                      ③ 좋아
- ④ 포근해                    ⑤ 귀여워

6 이 말놀이의 ㉠『 』 부분을 바꾸어 써 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 )

- ① 빨가면 장미
- ② 장미는 예뻐
- ③ 예쁜 것은 내 친구
- ④ 내 친구는 소중한
- ⑤ 보물은 소중한

7~8

하나는 뭐니?  
빗자루 하나

둘은 뭐니?  
안경알 둘

셋은 뭐니?  
토끼풀잎 셋

넷은 뭐니?  
밥상 다리 넷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와 같이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  
는 놀이를 ( ) (이)  
라고 한다.

8 이 노래의 특징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묻는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
- ② 흥내 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③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말하고 있  
다.
- ④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답하고  
있다.
- ⑤ 숫자를 듣고 떠오르는 낱말을 답하고  
있다.

9 다음 중 생선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아닌 것  
은 어느 것입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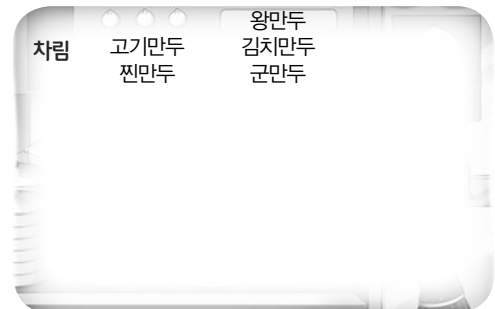
- ① 갈치                      ② 멸치
- ③ 연어                      ④ 고등어
- ⑤ 고구마

10 친구들이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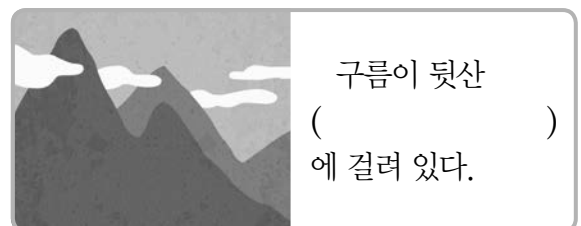
11 다음 중 음식의 재료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  
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군만두    ② 왕만두    ③ 찌만두
- ④ 고기만두    ⑤ 김치만두

12 다음 문장에 어울리는 토박이말은 어느 것입  
니까? ( )

국어  
활동



- ① 마루                      ② 마중물                      ③ 미리내
- ④ 불가심                      ⑤ 해거름

1~3

들에 가면 들나물  
새봄이라 봄 냉이  
쭉쭉 뽑아 쭉 나물

참기름에 참비름  
나리나리 미나리  
꼬불꼬불 고사리

살살 달래라 달래  
말랑말랑 말냉이  
질경질경 질경이

1 나물과 나물의 이름이 지어진 까닭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1) 말냉이 • • ㉠ 말랑말랑해서

(2) 쭉 나물 • • ㉡ 쭉쭉 뽑는다  
고 해서

2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살살 달래서 캐야 한다고 (이)  
라고 지어졌을 것이다.

- ① 달래      ② 고사리      ③ 말냉이  
④ 미나리      ⑤ 질경이

3 콩나물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생각해  
여 이 노래처럼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4 친구들이 콩지 따기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



- ① 자두도 빨개.  
② 빨가면 고추장.  
③ 떡볶이는 매워.  
④ 매운 것은 김치.  
⑤ 빨간 것은 매워.

5~6

높다 높다 하늘이 높다  
높다 높다 나무가 높다  
높다 높다 산이 높다  
높다 높다 건물이 높다

---

5 이 놀이에 어울리는 몸짓에 ○표를 하시오.



( ) ( ) ( )

6 이 말놀이를 이어 할 때에 빈칸에 들어갈 알  
맞은 말을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7** 주고받는 말놀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하나는 뭐니?  
순가락 하나

둘은 뭐니?  
젓가락 둘

셋은 뭐니?  
(                      )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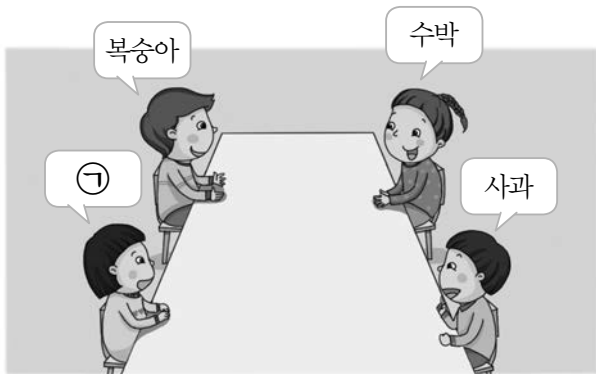
**8**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9~10

〈포함되는 낱말 말하기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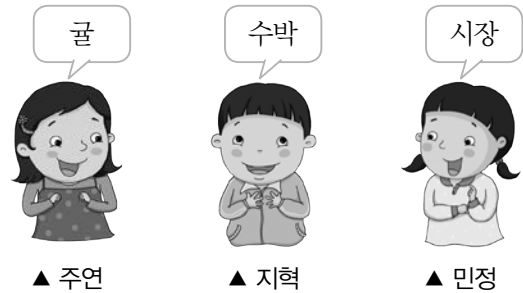
- ① 한 친구가 가게의 이름을 말합니다.
- ② 그다음 친구부터는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이름을 말합니다.
- ③ 이미 말한 물건의 이름을 다시 말하거나 다섯을 셀 때까지 말하지 못하면 다음 친구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9** 친구들이 한 말로 보아, ⑦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

- ① 문구점    ② 꽃 가게    ③ 과일 가게  
④ 생선 가게    ⑤ 채소 가게

**10** 친구들이 이 말놀이를 이어 하였습니다. 말놀이를 잘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                      )

**11** 말 덧붙이기 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앞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해야 한다.
- ②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 ③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해야 한다.
- ④ 앞 친구의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말을 덧붙이는 놀이이다.
- ⑤ 장소에 어울리는 낱말을 다양하게 떠올리면 놀이를 잘할 수 있다.

**12** 그림 속 차림표에 있는 김밥은 무엇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인지 세 가지 고르시오.

(                      )



- ① 모양    ② 색깔    ③ 재료  
④ 크기    ⑤ 먹는 사람

- 1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를 쓰시오.

혜진: 자신이 아는 것을 뽑낼 수 있어.  
주영: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빨리 말  
할 수 있어.  
다희: 글을 읽을 때 문장의 뜻을 정확하  
게 알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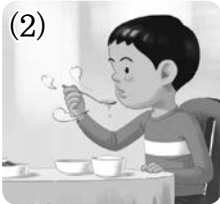
( )

- 2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다음 그림에 알맞은 문장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 ㉠

누나가 신  
켜서 내 방을  
정리합니다.



• ㉡

뜨거운 국  
은 식혀서 먹  
어야 합니다.

- 3 다음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헛갈렸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 )

알림장을 못 써서 친구  
와 통화했는데 글자를 다  
르게 받아쓴 적이 있어.

받아쓰기할 때 소  
리 나는 대로 써서  
틀린 적이 있어.



- ① 여러 가지 문장 부호  
② 소리가 비슷한 낱말  
③ 문장을 이어 주는 말  
④ 뜻이 서로 반대인 낱말  
⑤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낱말

-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으시오.

(1)

과녁에 화살  
을

•

• ㉠

마치다

(2)

학교 수업을  
을

•

• ㉡

맞히다

5~6

학교를 맞히고 은찬이와 놀이터에서 만나  
기로 했다. 놀이터에 도착해서 기다리니 조  
금 있다가 은찬이가 왔다. 은찬이와 함께 그  
네를 타다가 시소도 탔다. 무척 재미있었지  
만 더웠다.

“우리, 그늘에 가서 잠깐 쉴까?”

“좋아. 여기에서 그늘까지 몇 ㉠걸음인지  
세어 보자.”

시소에서 그늘까지 은찬이와 나란히 숫자  
를 세며 걸었다.

- 5 이 글에서 잘못 쓴 낱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쓴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맞히고 → 마치고  
② 놀이터에서 → 노리터에서  
③ 왔다 → 와파  
④ 시소도 → 씨소도  
⑤ 탔다 → 탓다

- 6 ㉠‘걸음’을 넣어 짧은 글을 지어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7~8

미호에게

미호야, 안녕! 나, 진주야.

처음에 우리 반에서 나만 짝이 없어서 너무 쓸쓸했어. 그런데 네가 전학을 와서 내 짝이 되었지. ㉠학교를 맞히고 너와 같이 집에 가면서 이야기할 때가 정말 좋아. 그리고 너랑 같이 놀이터에 갔다 와서 더 친해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나도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20〇〇년 4월 20일

네 짝꿍 진주가

**7** 미호가 이 편지를 읽고 들었을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국어 활동

- ① 누가 쓴 편지인지 궁금하다.
- ② 진주가 전학을 와서 기쁘다.
- ③ 낱말을 잘못 써서 이해하기 어렵다.
- ④ 진주가 편지를 쓴 까닭을 잘 모르겠다.
- ⑤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아서 읽기 어렵다.

**8** ㉠에서 잘못 쓴 낱말을 두 가지 찾아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국어 활동

- (1) ( ) → ( )
- (2) ( ) → ( )

9~10

㉡『1교시 국어 시간이었다.』 ㉢『은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친구가 책 읽기를 다 마칠 때까지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반 친구들은 의자에 반드시 앉아 책 읽는 것을 잘 듣고 있었다.』

**9** ㉡~㉤ 중 잘못 사용한 낱말이 있는 문장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 )

**10** 문제 9번에서 답한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11** 다음은 한결이가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편지의 형식 중 무엇이 담겨 있는지 두 가지를 고르시오. ( )

영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김한결이에요.

저희를 위해 날마다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영양 선생님께서 반찬을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셔서 미역무침도 다 먹었어요. 급식을 먹는 게 항상 즐거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 ① 첫인사    ② 끝인사    ③ 쓴 날짜
- ④ 쓴 장소    ⑤ 전하고 싶은 말

**12** 오른쪽 그림을 보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편지를 씁니다. 다음 편지에서 잘못된 점을 골라 ○표를 하시오.



소원에게

소원아, 안녕? 나는 하민이야.

주말에 도서관에서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20〇〇년 5월 12일

하민이가

- (1) 받을 사람을 쓰지 않았다. ( )
- (2) 첫인사와 끝인사를 쓰지 않았다. ( )
- (3) 전하고 싶은 말을 자세히 쓰지 않았다. ( )

1~3



1 남자아이는 왜 글자를 잘못 썼다고 했습니까?  
( )

- ①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려서
- ② 다른 생각을 하며 들어서
- ③ 글자를 잘못 알고 있어서
- ④ 문이 닫히는 소리에 놀라서
- ⑤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2 다음 낱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몸의 어느 부분을 맞거나 부딪쳐 상처가 났을 때.
- ㉡ 문이나 서랍 등이 다른 것에 의해 닫아졌을 때.

(1) 닫히다: ( ) (2) 다치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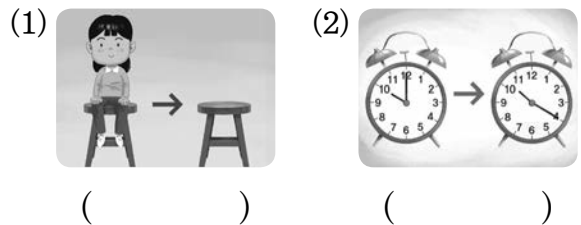
3 이 그림 속 친구들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4 소리가 비슷한 낱말끼리 선으로 이으시오.

- |         |   |   |     |
|---------|---|---|-----|
| (1) 거름  | • | ㉠ | 가치  |
| (2) 같이  | • | ㉡ | 걸음  |
| (3) 느리다 | • | ㉢ | 있다가 |
| (4) 이따가 | • | ㉣ | 늘이다 |

5 다음 중 '이따가'의 뜻에 알맞은 그림에 ○표를 하시오.



( )

( )

6 다음 그림을 보고 정확한 낱말을 골라 문장을 말한 친구를 쓰시오.



혜수: 어머니께서 구멍 난 양말을 깎다.  
준오: 바늘과 실로 구멍 난 양말을 깎다.

( )

7~8

은서는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나게 글을 읽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재미있는지 서로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도 빙그레 웃으시더니 우리 반 칭찬판에 칭찬 딱지를 붙여 주셨다.

“와! 은서, 정말 호랑이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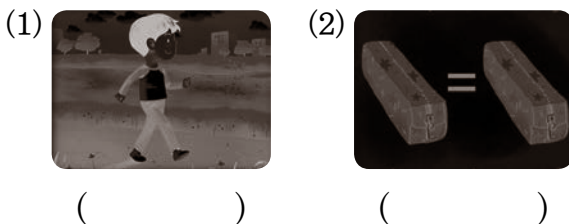
“우리가 이야기 나라에 ㉡갔다 온 것 같아.”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나도 은서처럼 책을 실감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7 친구들이 은서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① 재미있는 문제를 내서
- ② 정말 이야기 나라에 가기로 해서
- ③ 쉬운 낱말을 사용하여 글을 읽어서
- ④ 호랑이처럼 분장을 하고 글을 읽어서
- ⑤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나게 글을 읽어서

8 ㉠‘같다’와 ㉡‘갔다’의 뜻을 생각하며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은 무엇인지 각각 기호를 쓰시오.



9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바칩니다	받칩니다
맞습니다	말칩니다

- (1) 이 상을 어머니께 (     ).
- (2)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     ).

10~12

영양 선생님께

영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김한결이에요.

저희를 위해 날마다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영양 선생님께서 반찬을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셔서 미역무침도 다 먹었어요. 급식을 먹는 게 항상 즐거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〇〇년 4월 22일

㉡한결 올림

10 한결이가 영양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11 ㉠은 편지의 형식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

- ① 첫인사                      ② 끝인사
- ③ 쓴 사람                    ④ 받을 사람
- ⑤ 전하고 싶은 말

12 한결이가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면 ㉡은 어떻게 바꿔 써야 할지 쓰시오.

(     )

13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7~9

가 ‘나도 눈처럼 하얀 털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까만 아기 양은 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뜨개질 솜씨를 살려서 하얀 털실로 스웨터를 떠 달라고 했어요.

나 그러던 어느 날, 산등성이 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아!”

까만 아기 양이 친구들에게 소리치려 하자, 폴로가 앞을 막아섰어요.

“비가 올 것을 알리는 것도, 피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도, 바로 내가 할 일이야!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7 까만 아기 양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폴로와 화해하는 것
- ② 까만 스웨터를 갖는 것
- ③ 양들의 대표가 되는 것
- ④ 눈처럼 하얀 털을 갖는 것
- ⑤ 할아버지께 칭찬을 받는 것

8 까만 아기 양과 폴로는 사이가 어떠한지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사이가 좋지 않다. (      )
- (2) 제일 친한 친구 사이이다. (      )
- (3) 만나지 못해 서로 그리워한다. (      )

9 다음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쓰시오.

까만 아기 양이 비가 올 것 같다고 알리려 했지만 폴로가 가로막았다.

(      )

10 다음 그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생각하여 보고, ①~④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의 그림의 번호를 쓰시오.

국어 활동



(      )

11 겪은 일을 차례대로 글을 썼는지 확인할 때에 생각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겪은 일을 재미있게 바꿔 썼는가?
- ② 흥내 내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가?
- ③ 겪은 일을 생각나는 차례대로 정리했는가?
- ④ 있었던 일이 차례대로 잘 드러나게 썼는가?
- 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사용해 썼는가?

12 다음 ‘나의 미래 일기’에서 ‘일이 일어날 때’를 펼친 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1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 ㉠ 갖고 싶은 장난감에 대해 말할 때
- ㉡ 친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 ㉢ 주말에 있었던 일을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 ㉣ 어머니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때

( )

2~4

밤 열두 시가 되자 신데렐라는 궁전 밖으로 급하게 뛰기 시작했어. 오후에 신데렐라는 호박 마차를 타고 궁전에 갈 수 있었어. 아침에 언니들은 궁전에 갈 준비를 했어.



2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 )

- ①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다.
- ②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다.
- ③ 말하는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 ④ 여자아이와 더 친해지고 싶다.
- ⑤ 너무 자세하게 말해서 지루하다.

3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쓰시오.

( )

4 여자아이가 말할 때에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5~6

가 점심때에는 호랑이를 죽이고 살아 돌아온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나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 배 속에서 잠이 깬습니다. 소금 장수의 가마니 뒤에 숨은 덕분에 둘은 데인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뛰던 호랑이가 잠잠해진 것을 보면 죽은 모양이오.”

“배 속이 이렇게 많이 탔으니 죽을 만도 하지요.”

두 사람은 호랑이 입을 열고 배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점심때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죽은 호랑이를 둘러메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 며칠 뒤, 임금님까지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구나.”

임금님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호랑이를 죽인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5 글 ㉠~㉣를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 → ㉡ → ㉢      ② ㉠ → ㉢ → ㉡
- ③ ㉡ → ㉢ → ㉠      ④ ㉡ → ㉠ → ㉢
- ⑤ ㉢ → ㉡ → ㉠

6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을 정리하여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7~9

㉑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는 서둘러 양치기 개 폴로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어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하얀 눈뿐이었어요.

“이렇게 눈 덮인 들판에서 하얀 양들을 찾는 것보다 북극에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게 더 쉽겠군.”

㉒ 점심때쯤, 할아버지는 언덕 위에 있는 까만 점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틀림없는 까만 아기 양이었어요. 게다가 동굴 속에는 새하얀 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7 할아버지께서 이튿날 아침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 )

- ① 양털을 깎았다.
- ② 까만 점을 향해 뛰어갔다.
- ③ 눈 덮인 들판에서 양들을 찾았다.
- ④ 언덕 위에 있는 까만 점을 발견했다.
- ⑤ 폴로와 함께 양들을 찾으러 집을 나섰다.

8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새하얀 양들을 찾으셨는지 쓰시오.

( )

9 이 이야기를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지 한 가지를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친구들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 \_\_\_\_\_  
\_\_\_\_\_

10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정리할 때 생각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누구와 있었던 일인가요?
- ②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 ③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④ 아침, 점심, 저녁에는 각각 어떤 일이 있었나요?
- 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11 다음은 민지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 ㉑ 점심때 가족들과 김밥을 먹었다.
- ㉒ 오전 9시에 아버지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 ㉓ 저녁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 이모와 함께 놀았다.

( ) → ( ) → ( )

12 이번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나의 미래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차례대로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_\_\_\_\_

1~3



1 다음은 그림 가~라 중 무엇과 비슷한 상황 인지 기호를 쓰시오.

전시회에 가서 새로 알게 된 물건을 친구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

그림 ( )

2 그림 나 의 여자아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소중한 물건
- ② 친구의 물건
- ③ 잃어버린 물건
- ④ 새로 알게 된 물건
- ⑤ 친구가 잘 모르는 물건

3 그림 라 의 남자아이가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 해야 할지 떠올려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이 연필깎이는 \_\_\_\_\_

4~6

옛날 텔레비전은 요즘 텔레비전과 많이 다릅니다. 옛날 텔레비전은 네모 상자 모양 이고 화면이 작습니다. 화면은 평평하지 않고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보려면 동그란 모양의 장치를 손으로 돌려야 합니다.

옛날 라디오는 요즘 라디오와 많이 다릅니다. 옛날 라디오는 텔레비전보다 작은 네모 상자 모양입니다. 동그란 장치가 있는 곳 옆에는 투명한 자처럼 생긴 것이 있고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장치를 돌려서 빨간 선을 움직이면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옛날 텔레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 ㉠ 화면이 작다.
- ㉡ 네모 상자 모양이다.
- ㉢ 화면의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다.
- ㉣ 다른 방송을 보려면 텔레비전을 두드린다.

( )

5 이 글에서 옛날 물건을 설명하려는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요즘 사용하는 물건과 많이 \_\_\_\_\_ 때문이다.

6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요즘과 다른 물건 ② 다 함께 돌려요
- ③ 미래를 살펴봐요 ④ 보고 싶은 할머니
- ⑤ 요즘 텔레비전과 라디오

**7** 물건을 설명하는 글을 잘 썼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에 ×표를 하시오.

- (1) 설명하고 싶은 까닭을 잘 썼는지 확인한다. ( )
- (2) 설명하는 물건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썼는지 확인한다. ( )
- (3)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제목에 잘 드러나 있는지 확인한다. ( )

**8~9**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다른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 녀석! 커다란 고깃덩이를 물고 있군.’

개는 다른 개가 ㉡물고 있는 고기를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개를 향해 크게 짖었어요.

“멍멍. 멍멍.”

개가 짖기 시작하자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8** 개가 물고 있던 고기를 강물에 빠뜨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① 뛰어가다 넘어져서
- ② 헤엄을 치다 실수를 해서
- ③ 다른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서
- ④ 다른 개와 이야기하다 고기를 떨어뜨려서
- ⑤ 다른 개가 물고 있는 고기를 빼앗으려고 통나무 다리에서 짖어서

**9** ㉠~㉢을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 (1) ㉠ 입에 [ ]
- (2) ㉡ 물고 [ ]
- (3) ㉢ 강물에 [ ]

**10** 다음 중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국어 활동

- ① 국어      ② 소리      ③ 오이
- ④ 운동      ⑤ 먹이

**11~12**

발명하고 싶은 물건	내 몸에 꼭 맞는 의자
발명하려는 까닭	자리가 바뀔 때마다 높이가 안 맞는 의자가 있어서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자 옆의 초록색 단추를 누르면 내 몸에 맞게 높이가 자동으로 맞추어진다.</li> <li>• 연두색이어서 눈이 편안하다.</li> <li>• 땅콩 모양이어서 재미있다.</li> </ul>

**11** 다음 중 이 표를 만든 친구는 누구일지 쓰시오.

하민: 의자의 색이 다양하면 좋겠어.

진아: 나는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의자를 만들 거야.

은영: 마음껏 그림을 그렸다 지울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면 재미있을 거야.

( )

**12** 이 표에서 발명하려는 물건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 연두색이다.

㉡ 땅콩 모양이다.

㉢ 자리가 바뀔 때마다 들고 다녀야 한다.

㉣ 의자 옆의 초록색 단추를 누르면 내 몸에 맞게 높이가 자동으로 맞추어진다.

( )

1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을 두 가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2~3

야구를 하다가 모자를 잃어버렸어. 노란색이고 오리가 그려져 있어. 혹시 보면 찾아 줘.

등굣길에 모자를 잃어버렸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혹시 보면 찾아 줘.

민수

서은



2 민수가 잃어버린 모자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노란색이다.      ② 새로 산 것이다.  
③ 별이 달려 있다.      ④ 이름이 쓰여 있다.  
⑤ 오리가 그려져 있다.

3 민수가 서은보다 잃어버린 모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 ㉠ 여러 친구에게 말했기 때문에  
㉡ 모자가 매우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 잃어버린 모자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      )

4~6

가 민속 박물관에서 옛날 집 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도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양이나 사용 방법이 요즘에 우리가 보는 물건과 많이 달랐습니다.

나 옛날 라디오는 요즘 라디오와 많이 다릅니다. 옛날 라디오는 텔레비전보다 작은 네모 상자 모양입니다. 동그란 장치가 있는 곳 옆에는 투명한 자처럼 생긴 것이 있고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장치를 돌려서 빨간 선을 움직이면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소개하는 글입니까?

(      )

- ① 소중한 물건  
② 잃어버린 물건  
③ 갖고 싶은 물건  
④ 새로 알게 된 물건  
⑤ 친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5 글 ㉡에서는 옛날 라디오의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지 두 가지를 고르시오. (      )

- ① 모양      ② 가격      ③ 무게  
④ 만든 사람      ⑤ 사용 방법

6 글쓴이는 민속 박물관에 다녀와서 옛날 라디오 외에 무엇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을지 이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두 가지를 쓰시오.

(      )

7 내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물건을 떠올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글의 제목
- ② 물건의 특징
- ③ 설명하고 싶은 물건
- ④ 설명하고 싶은 까닭
- ⑤ 물건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

8 다음 남자아이가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글의 제목은 무엇이 좋을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나는 잃어버린 연필을  
설명하려고 해.

---



---

9~10

㉠구름이 없는 화창한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욕심 많은 개가 집으로 가는 ㉡길에 떨어진 고깃덩이를 보았어요. 개는 떨어진 ㉢고기를 열른 입에 물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개는 강가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통나무로 된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다른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9 욕심 많은 개는 다리를 건널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10 ㉠~㉣ 중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을 두 가지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11 다음 중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만 알맞게 말한 친구를 쓰시오.



▲ 민아

‘할아버지’, ‘생일은’, ‘물건을’  
이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이야.



▲ 하니

‘수요일’, ‘부모님께’, ‘마음도’  
가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이야.



▲ 현수

‘공원에’, ‘길을’, ‘물건과’가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  
말이야.

( )

12 자신이 발명하고 싶은 물건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발명하려는 까닭을 쓴다.
- ② 크기와 모양 등 특징을 자세히 쓴다.
- ③ 자신이 발명하고 싶은 물건을 떠올려 본다.
- ④ 설명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을 정한다.
- ⑤ 친구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불편해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3

학교에서 달리기를 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다.

‘으악, 내 신발!’

다른 아이들은 신발이 벗겨지지 않고 달리기를 잘하는데 나만 신발이 벗겨진 것이다.

신발아, 앞으로는 내 발에 꼭 붙어 있어라. 특히 달리기할 때.

1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새 신발을 사는 것
- ② 달리기 선수로 뽑히는 것
- ③ 신발이 벗겨지지 않는 것
- ④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것
- ⑤ 달리기에서 일 등을 하는 것

2 ‘내가 느꼈을 마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속상한 마음
- ② 부끄러운 마음
- ③ 당황스러운 마음
- ④ 일 등을 한 것이 자랑스러운 마음
- ⑤ 신발을 주워야 할지 망설이는 마음

3 ‘나’와 비슷한 마음을 느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4~6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뒤뜰에 있는 텃밭에 갔다. 텃밭에는 아기 상추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라고 있었다.

“어서어서 쑥쑥 자라라.”

빈 우유갑에 물을 떠서 상추에 부어 주었다. 조금 있으니 축구공 하나가 텃밭으로 날아왔다. 뒤이어 상진이가 뛰어왔다. 상진이는 성큼성큼 텃밭으로 들어가 축구공을 꺼내 왔다.

상추 몇 포기가 상진이의 발에 밟히는 걸 보니 속이 상했다.

4 ‘내가 텃밭에 있는 상추에게 물을 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5 ‘내가 텃밭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상진이가 상추에 물을 주는 것
- ② 상진이가 텃밭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것
- ③ 텃밭에 심어 놓은 식물들이 모두 죽은 것
- ④ 상진이가 텃밭에 들어가 축구공을 꺼내는 것
- ⑤ 상진이가 텃밭에 들어간 축구공을 막대기로 꺼내고 있는 것

6 다음 중 이 글에 나타난 ‘나’의 마음에 ○표를 하시오.

- (1) 상추를 아끼는 마음 ( )
- (2) 상추를 키우기 귀찮은 마음 ( )
- (3) 상진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 ( )

**7** 다음 글에서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      )

“야호!”  
하늘로 뿔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손이 아플 정도로 손뼉을 마주쳤다. 저녁때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참 뿌듯했다.

- ① 어머니께 죄송하다.
- ② 새 자전거가 갖고 싶다.
- ③ 어머니와 산책을 나가고 싶다.
- ④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며 놀고 싶다.
- ⑤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

**8~9**

㉠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오전 10시에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 배에다 청진기를 대보시더니 배탈이 났다고 하셨다. 나는 주사를 맞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 집에 와서 점심때가 되어 죽을 조금 먹었다. 어머니께서는 튜브에 물약을 따라 주셨다. 약이 너무 써서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 낮잠을 자고 오후 3시에 일어나니 배가 아프지 않았다. 나는 밖에서 놀고 싶어졌다.

**8** ‘나’는 언제 몸이 나았습니까? (      )

- ① 아침      ② 저녁      ③ 점심때
- ④ 오전 10시   ⑤ 오후 3시

**9** 다음은 이 글에 나타난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 ㉠ 긴장되는 마음
- ㉡ 밖에서 놀고 싶은 마음
- ㉢ 쓴 약의 맛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

(      ) → (      ) → (      )

**10** ㉠~㉣ 중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두 가지 찾아 기호를 쓰시오.

국어 활동

㉠유치원에 다닐 때 ㉡현장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넘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8살 때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정말 넓어 보였습니다.

(      )

**11~12**



**11** 다음은 그림 ㉠과 ㉡를 보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각각 어느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기호를 쓰시오.

아침에 철민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1)
점심때에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2)

**12** 그림 ㉠에서 남자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      )

- ① 물고기를 보니 신기하다.
- ②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 ③ 아파서 힘들고 쉬고 싶다.
- ④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설렌다.
- ⑤ 시험공부를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

1~2



친구가 아끼는 색연필을 떨어뜨렸어요.

1 이 그림에서 은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 )

- ① 설레고 떨리는 마음
- ② 즐겁고 반가운 마음
- ③ 신기하고 궁금한 마음
- ④ 미안하고 걱정하는 마음
- 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2 은아와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3 다음과 같은 마음이 들기에 알맞은 경험은 어느 것입니까? ( )

아쉬운 마음

- ① 치과에 처음 갔을 때
- ② 시험에서 백점을 받았을 때
- ③ 다투던 친구와 화해했을 때
- ④ 갖고 싶던 장난감을 선물 받았을 때
- ⑤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없을 때

4~6

상진이는 성큼성큼 텃밭으로 들어가 축구 공을 꺼내 왔다.

㉠상추 몇 포기가 상진이의 발에 밟히는 걸 보니 속이 상했다.

나는 상진이에게 말했다.

㉡“상진아, 상추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상진이가 나를 빤히 보며 되물었다.

“무슨 마음?”

“지금 밟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밟이 있었으면 벌써 달아났을걸.”

㉢상진이는 밟힌 상추를 보더니 멍쩍게 웃었다. 나는 상진이에게 긴 막대를 이용해서 공을 꺼내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우유갑에 물을 더 떠다가 상추에 부어 주었다. 상진이도 미안했는지 옆에서 조금씩 거들었다. ㉤상추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4 ‘나’의 말을 듣고 상진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 )

- ① 미안한 마음      ② 반가운 마음
- ③ 부러운 마음      ④ 뿌듯한 마음
- ⑤ 신기한 마음

5 ‘내’가 한 일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상진이에게 \_\_\_\_\_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6 ㉠~㉤ 중 ‘나’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아닌 것의 기호를 쓰시오.

( )



**7**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인물의 상황을 알아본다.
- ② 인물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살펴본다.
- ③ 인물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 ④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 본다.
- ⑤ 인물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직접 드러난 부분을 찾아 본다.

**8~9**

“우아,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어머니께서 씩웃 미소를 지으셨다.  
 “야호!”

하늘로 붕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손이 아플 정도로 손뼉을 마주쳤다. 저녁때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참 뿌듯했다.

**8** 이 글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     )

- ① 길을 잃었다.
- ② 어머니께 꾸중을 들었다.
- ③ 갑자기 비가 내려 옷이 젖었다.
- ④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었다.
- ⑤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노는 것을 보았다.

**9**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쓰고, 그때의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1)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_\_\_\_\_

\_\_\_\_\_

(2) ‘나’의 마음: \_\_\_\_\_

\_\_\_\_\_

**10~11**

㉠ 아침에 밥을 먹으려는데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다.

“어머니,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겠어요.”

㉡ 집에 와서 점심때가 되어 죽을 조금 먹었다. 어머니께서는 튜브에 물약을 따라 주셨다. 약이 너무 써서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10** ‘내’가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① 숙제를 해야 해서
- ②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 ③ 먹고 싶은 반찬이 없어서
- ④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어서
- ⑤ 동생과 다투어서 어머니께 혼이 나서

**11** 글 ㉡에 드러난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     )

- ① 재미있다.                      ② 심심하다.
- ③ 쉬고 싶다.                    ④ 더 자고 싶다.
- ⑤ 쓴 약의 맛을 느끼고 싶지 않다.

**12** 다음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여 보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인물의 마음을 넣어 이야기를 만들어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_\_\_\_\_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2학년

반

점수

이름

1~2

- ㉠오늘은 비가 내렸다.
-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 나는 장화를 신고 학교에 갔다.
- 나는 ㉢ 장화를 신고 학교에 갔다.

1 ㉠ 문장과 비교했을 때 ㉡ 문장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 )

- ① 글을 쓴 곳이 잘 드러난다.
- ② ‘오늘’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③ 비가 내리는 느낌이 더 실감 난다.
- ④ 일이 일어난 때를 더 잘 알 수 있다.
- ⑤ 일이 일어난 곳을 더 잘 알 수 있다.

2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꾸며 주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노란      ② 아주      ③ 맛있는
- ④ 후드득      ⑤ 동실동실

3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꾸며 주는 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1)



\_\_\_\_\_ 거북선이  
이 바다에 나간다.

• • ㉠ 높이

(2)



구름이 \_\_\_\_\_  
떠 있다.

• • ㉡ 튼튼한

4 다음 중 꾸며 주는 말을 잘못 사용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 )

- ① 친구들이 깔깔깔 웃었다.
- ② 하얀 구름이 첩병첩병 떠 있다.
- ③ 사람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한다.
- ④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수영복을 입고 있다.
- ⑤ 수영하다 힘이 들어서 노란 의자에서 쉬었다.

5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6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쓰시오.

국어  
활동



국수에서 김이 \_\_\_\_\_

7~9

수컷 사슴벌레의 생김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큰턱이에요. 수컷 사슴벌레는 큰턱을 가지고 있어요. 큰턱 옆에는 더듬이도 있어요. 수컷 사슴벌레의 등은 단단한 껍데기로 덮여 있어요. 단단한 껍데기 속에는 얇은 속 날개가 있지요.

수컷 사슴벌레는 나뭇진을 먹고 살아요. 배가 고픈 수컷 사슴벌레는 더듬이를 세워 나뭇진의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속 날개를 사용해 나뭇진이 흐르는 나무로 날아가지요. 수컷 사슴벌레는 나뭇진을 활아 먹어요. 특히 참나무 진은 수컷 사슴벌레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랍니다.

7 이 글에서 설명한 수컷 사슴벌레의 특징을 두 가지 골라 쓰시오.

먹이, 생김새, 집 짓기,  
잠자기, 사는 곳

( )

8 수컷 사슴벌레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인지 쓰시오.

( )

9 수컷 사슴벌레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를 쓰시오.

초현: 큰턱을 가지고 있어.  
종우: 큰턱 안에 더듬이가 있어.  
도진: 부드러운 껍데기 속에 단단한 속 날개가 있어.

( )

10~11

옆 침대 아줌마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장기려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밀린 입원비 때문에 퇴원 못 하는 환자를 사무장님 몰래 뒷문으로 내보내셨대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병원으로 전화가 왔더라요. 어떤 거지가 선생님 수표를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달라고요. 틀림없이 훔치거나 주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월급 받은 걸 통째로 준 거였대요.”

“남한테는 그리 베풀면서, 정작 선생님 가운은 소매가 나달나달하던데…….”

10 이 글에는 장기려 선생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까? ( )

- ① 자신만 아는 모습
- ② 환자들을 괴롭히는 모습
- ③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모습
- ④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
- 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모습

11 이 글을 읽고 장기려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12 다음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느낌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 )

국어  
활동

‘’는 진흙이나 반죽 등이 물기가 많아 매우 보드랍게 질다는 뜻이다.

- ① 보드레하다      ② 부들부들하다
- ③ 거칠거칠하다    ④ 찢득찢득하다
- ⑤ 잘바닥잘바닥하다

1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어 그 뜻을 자세히 해 주는 말

( )

2 문제 1번의 답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세 가지 고르시오. ( )

- ① 일이 일어난 때를 알릴 수 있다.
- ② 느낌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 줄 수 있다.
- ④ 내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⑤ 내 생각을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3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4 다음 중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 )

- ① 새가 노래한다.
- ② 날씨가 매우 춥다.
- ③ 바람이 세게 분다.
- ④ 푸른 하늘을 보았다.
- ⑤ 어머니께서 새 옷을 사 주셨다.

5~7

가 수컷 사슴벌레의 생김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큰턱이에요. 수컷 사슴벌레는 큰턱을 가지고 있어요. 큰턱 옆에는 더듬이도 있어요.

나 수컷 사슴벌레는 다른 수컷 사슴벌레와 자주 힘겨루기를 해요.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거나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지요. 나무 위에서 마주 선 수컷 사슴벌레는 큰턱을 맞대고 상대를 밀어붙여요. 한 수컷 사슴벌레가 큰턱으로 상대를 꼭 잡고 번쩍 들어 올리면 힘겨루기가 끝이 나요.

5

서술형  
논술형  
문제

글 가를 읽고 알게 된 수컷 사슴벌레의 생김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쓰시오.

\_\_\_\_\_

\_\_\_\_\_

6 수컷 사슴벌레끼리 하는 힘겨루기는 언제 끝이 나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 수컷 사슴벌레가  (으)로 상대를 꼭 잡고 번쩍 들어 올리면 끝난다.

7 다음 ㉠'V'와 ㉡'∨' 중 어느 부분을 더 길게 띄어 읽어야 하는지 기호를 쓰시오.

수컷 사슴벌레는 ㉠ V 큰턱을 가지고 있어요. ㉡ ∨ 큰턱 옆에는 V 더듬이도 있어요.

( )

## 8~11

가 병실에 누워만 있는 건 진짜 심심해요. 엄마가 일 끝내고 밤늦게 올 때까지 나 혼자 뿐이거든요. 나는 몰래 침대를 빠져나와 병원 안을 돌아다녀요. 그러다 장기려 선생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 얼른 따라가요. 병실에서 병실로, 진찰실에서 또 수술실로, 장기려 선생님은 쉬지 않고 환자를 보러 다녀요.

나 “남한테는 그리 베풀면서, 정작 선생님 가운은 소매가 나달나달하던데…….”

“월급 많이 주면서 모셔 가려는 병원도 많은데,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돌보려고 사서 고생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 의사라잖아요.”

선생님이 바보 의사래요. 장기려 선생님은 바보 의사 선생님…….

다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의사가 되고 싶었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치료에 쓰는 약이나 기구 값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요즘은 건강할 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병나고 다쳤을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때 마음먹었어요. 장기려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8 글 ㉠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 )

- ① 낡고 지저분한 병원의 모습
- ②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모습
- ③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
- ④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 ⑤ 장기려 선생님이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시는 모습

9 사람들이 장기려 선생님을 ‘바보 의사’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10 장기려 선생님이 한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약과 기구를 직접 만들어 쓰셨다.
- ② 월급을 많이 주는 병원으로 옮기셨다.
- ③ 병원에서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셨다.
- ④ 병원이 없는 마을에 가서 병원을 지었다.
- 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11 장기려 선생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내용 중 알맞지 않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장기려 선생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 )
- (2) 바보 의사인 장기려 선생님이 답답하고 걱정스러워. ( )
- (3) 장기려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 )

12 다음은 꾸며 주는 말을 바꾸어 가며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승현: 공을 멀리 찼다.  
가연: 공을 힘차게 찼다.  
은채: 공을 멋지게 찼다.  
서준: 공을 주렁주렁 찼다.

( )

1~2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 나고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더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 1 이 노래에 나오는 기분이 좋아지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 )

- 2 문제 1번의 답과 같은 말을 하면 일어나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②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다.
- ③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 자란다.
- ④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 ⑤ 짜증 나고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다.

- 3 다음 그림의 상황에서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 )

민재야, 미안해. 다치지 않았니?  
응, 괜찮아. 너는 괜찮니?



- ① 고맙다.
- ② 부끄럽다.
- ③ 샘이 난다.
- ④ 속이 상한다.
- ⑤ 조마조마하다.

4~6



- 4 재희가 속상해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 ( )

- 5 현수는 재희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 )

- ① 탄짓을 하며 말했다.
- ②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 ③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
- ④ 재희의 기분을 살피며 말했다.
- ⑤ 재희의 말을 듣지 않고 말했다.

- 6 현수와 대화하고 난 뒤에 재희의 기분은 어떨겠습니까? ( )

- ① 우울하다.
- ② 지루하다.
- ③ 속상하다.
- ④ 짜증이 난다.
- ⑤ 마음이 풀린다.

**7**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대화할 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세 가지 고르시오.  
( )

국어  
활동

- ① 듣는 사람의 표정 살피기
- ② 최대한 짧게 말하려고 노력하기
- ③ 자신의 기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 ④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하기
- ⑤ 듣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가지기

**8** 다음 그림에서 여자아이의 말을 고운 말로 바꾸어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_\_\_\_\_

\_\_\_\_\_

9~11

운동장에서 경기를 했다. 공을 차면서 고개를 빨리 돌아오면 이기는 경기였다.

드디어 나와 내 짝 민지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몰고 가던 공이 민지가 찬 공과 부딪쳤다. 그 바람에 민지가 공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민지의 얼굴은 빨갱게 변해 있었고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공을 몰고 가느라 너를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던 민지는 씩 웃으며 말했다.

㉠ “지석아,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뭐.”

**9** 경기를 하다가 민지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 )

- ① 공에 걸려 넘어졌다.
- ② 달리다 신발이 벗겨졌다.
- ③ 달리기에서 일 등을 했다.
- ④ 지석이의 공에 얼굴을 맞았다.
- ⑤ 지석이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10** 민지가 넘어졌을 때 지석이는 어떻게 했는지 쓰시오.  
( )

**11** ㉠과 같은 말을 할 때 민지는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 )

- ① 지석이가 미웠을 것이다.
- ② 부끄럽고 속상했을 것이다.
- ③ 지석이와 말하기 싫어졌을 것이다.
- ④ 지석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 ⑤ 미안해하는 지석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12** 다음 다짐 쪽지에서 글쓴이가 다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

나는 줄넘기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친구에게 “잘할 수 있어. 힘내!”라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 ① 반찬을 골고루 먹겠다.
- ② 줄넘기 연습을 하겠다.
- ③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 ④ 친구에게 고운 말을 쓰겠다.
- ⑤ 부모님께 인사를 잘 하겠다.



1~3



1 재희가 그림을 망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① 물을 엷질러서
- ② 크레파스가 부러져서
- ③ 현수가 재희의 팔을 쳐서
- ④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 ⑤ 팔이 아파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어서

2 재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 )

- ① 기쁘다.                      ② 미안하다.
- ③ 뿌듯하다.                  ④ 속상하다.
- ⑤ 부끄럽다.

3 현수가 재희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4~5



4 ㉠에 들어갈 재희의 기분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고마워.    ② 반가워.    ③ 속상해.
- ④ 무서워.    ⑤ 축하해.

5 현수와 재희의 대화를 보고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지현: 현수와 재희는 사이가 더 나빠졌을 거야.

민호: 현수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으로 말했어.

수지: 현수는 재희의 기분이 어떤지 먼저 알아주었어.

( )

6 다음 그림에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7 다음 그림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기분을 생각하며 해 줄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태권도는 왜 배웠니?
- ② 나는 피아노를 잘 쳐.
- ③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 ④ 금메달을 딴 것을 정말 축하해!
- ⑤ 다음에는 내가 상을 받을 거야.

8~10

그런데 지석이가 찬 공이 내 쪽으로 굴러와 내가 공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야!”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팠고 부끄럽기도 했다.

“공을 몰고 가느라 너를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화를 내려던 나는 지석이의 말을 듣고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지석이가 진심으로 나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 8 공에 걸려 넘어졌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반갑다.    ② 아프다.    ③ 미안하다.
- ④ 부끄럽다.    ⑤ 재미있다.

- 9 ‘내가 화를 내려다 잠깐 말을 멈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대회에서 일 등을 해서 (      )
- (2) 지석이가 진심으로 사과해서 (      )
- (3) 다른 친구들이 위로해 주어서 (      )

- 10 지석이처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했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11~12

나의 다짐

나는 줄넘기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친구에게 “잘할 수 있어. 힘내!”라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2000년 7월 3일    이름: 김지수

- 11 이와 같은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 ① 시                      ② 편지                      ③ 일기
- ④ 이야기                ⑤ 다짐 쪽지

- 12 자신이 고운 말을 쓰지 않았던 상황을 떠올려 쓰고, 그때에 써야 할 고운 말도 함께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



---

1~3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꾼이 살았어. 하루는 농사꾼이 밭을 일구느라고 팽이질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큰 독을 하나 발견했어. 그냥 내버려 두려다 좀 아깝기도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 그 안에 팽이를 넣어 두었지.

이튿날, 농사꾼이 밭에 가려고 독에 넣었던 팽이를 꺼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독 안에 똑같은 팽이 한 자루가 또 들어 있어. 이번엔 엽전 한 닢을 독 안에 넣었더니 독 안에 엽전 한 닢이 또 들어 있는 거야. ㉠ 농사꾼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1 농사꾼이 밭을 일구다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 )

2 이 글에 등장하는 농사꾼의 모습을 떠올린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심술궂은 얼굴
- ② 다리를 다친 모습
- ③ 불만이 많은 표정
- ④ 비단옷을 입은 모습
- ⑤ 착하고 순진한 모습

3 ㉠에 나타난 농사꾼의 행동을 몸짓으로 알맞게 나타낸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수아: 웃는 표정으로 춤을 춘다.  
재연: 찡그리며 다리를 잡고 앉는다.  
은빈: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 )

4~6

가 동네 꼬마가 수박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수박 드세요.”

아저씨는 얼떨결에 수박을 받아 들었습니다.

“어? 아저씨 집에서 달콤한 딸기 냄새가 나요. 저도 딸기 좋아하는데…….”

나 ‘딸기를 좀 나누어 줄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딸기를 가져다줄까?’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래도…….’

아저씨는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4 꼬마가 수박을 들고 찾아오자 아저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 )

- ① 꼬마에게 화를 냈다.
- ② 얼떨결에 수박을 받아 들였다.
- ③ 꼬마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 ④ 꼬마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 ⑤ 꼬마에게 집에 있는 딸기를 주었다.

5 아저씨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든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 )

6 글 가와 나에 나타난 꼬마와 아저씨의 마음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1) 꼬마 • • ㉠ 미안하다.

(2) 아저씨 • • ㉡ 수박을 나누어 먹고 싶다.

## 7~8

“그게 매미인 건 나도 알아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 젊은 개미 한 마리가 입맛을 다시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어.”

“이상하다. 매미라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온종일 노래나 부르는 팔자 좋은 놈일 텐데, 이 갸름한 땅속에서 뭘 하지?” / “날개도 없잖아!”

“생긴 것이 달라. 이젠 매미가 아닐 거야.” 개미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 “조용히들 들어라. 이젠 틀림없는 매미란다. 매미는 한여름을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기 위해 몇 년이나 어두운 땅속에서 날개와 목청을 다듬는단다. 보아하니, 이 매미는 5년도 넘게 참고 기다렸겠는데?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7년은 족히 됐을라. 한여름의 노래를 위해서 7년을…….”

**7** 젊은 개미의 말을 들은 매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 )

국어 활동

- ① 두렵다. ② 반갑다. ③ 신기하다.  
④ 부끄럽다. ⑤ 신이 난다.

**8** ㉠의 말을 하는 인물의 표정은 어떠하겠는지 쓰시오.

국어 활동

( )

**9** 다음 글에서 여우의 말은 어떤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리겠습니까? ( )

“제발 도와주세요! 이가 너무 아파요!”  
여우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 ① 조용한 목소리 ② 고마운 목소리  
③ 화가 난 목소리 ④ 깜짝 놀란 목소리  
⑤ 우는 듯한 목소리

## 10~11

아침에 보성이가 『토끼와 자라』를 읽고 있었다. 깔깔 웃기도 하는 것을 보니 무척 재미있어 보였다. 그래서 나도 도서관에 가서 『토끼와 자라』 책을 빌려 읽었다.

㉠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려고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갔다. 토끼는 자라에게 속아 용궁으로 가게 되었다. 용궁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자라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 토끼는 당황하지 않고 꾀를 내어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 『책을 읽으며 자라의 말에 쉽게 속는 토끼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토끼가 어려움을 이겨 내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10** 글쓴이가 『토끼와 자라』를 읽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 )

**11** ㉠과 ㉡은 무엇에 해당하는지 선으로 이시오.

(1) ㉠ • ① 이야기의 내용

(2) ㉡ • ② 생각과 느낌

**12** 다음 장면으로 역할놀이를 할 때, 여우의 말은 어떤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리겠는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드소토 선생님: 최근에 아내와 내가 놀라운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한 번만 바르면 죽을 때까지 이가 안 아플 거요. 어때요? 이 특별 치료를 처음으로 받아 보지 않겠습니까?

여우: 좋고말고요! 이거 행운인데요.

\_\_\_\_\_

\_\_\_\_\_

1~3

㉠원님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독 안으로 쭈욱 들이밀었어. 그러다가 원님 아버지는 그만 독 속으로 빠지고 말았지. 그러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 원님이 얼른 아버지를 독에서 꺼냈지. 아, 그런데 독 안에 또 아버지가 있질 않겠어? 머뭇거리고 있으니 까 독 안에서 소리를 쳐.

“무엇들 하느냐. 어서 나를 꺼내지 않고!”

원님은 그 아버지도 꺼냈어. 꺼내고 보니 독 안에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네. 꺼내 놓고 보면 독 안에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고, 또 있고…….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불려 봤지. 그랬더니 그 많은 아버지가 다 같이 “왜 그러느냐?” 하거든. 그러다가 아버지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지.

“내가 진짜 원님 아비다.”

“나야말로 진짜다!”

1 원님의 집안이 난리가 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 )

2 독 안에서 나온 아버지들을 본 원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 )  
① 기쁘다. ② 재미있다. ③ 부끄럽다.  
④ 행복하다. ⑤ 당황스럽다.

3 ㉠에 나타난 원님 아버지의 행동을 몸짓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쓰시오.

서술형  
논술형  
문제

4~6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아저씨는 혼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부랴 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딸기를 깨끗이 씻고, 꼭지를 따서 양동이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큰술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수레에 싣고 밖으로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큰술을 가득 채운 딸기는 어느새 맛있는 딸기잼이 되었습니다.

“와, 딸기잼이다. 맛있겠다!”

하하하, 호호호…….

아저씨는 딸기잼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니……. 아저씨 얼굴이 딸기처럼 빨개졌습니다.

4 아저씨가 만든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 )

5 ㉡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아저씨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
- ② 요리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
- ③ 딸기를 팔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 ④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고 싶은 마음
- ⑤ 사람들에게 딸기잼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6 아저씨의 얼굴이 빨개진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 )

- ① 손수레를 힘껏 밀어서
- ② 혼자 딸기를 먹다 들켜서
- ③ 딸기잼을 받은 것이 기뻐서
- ④ 맛있는 딸기잼을 먹고 화가 나서
- ⑤ 딸기잼을 나누어 준 뒤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 정답과 해설

## 1 시를 즐겨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2~3쪽

- 1 ①      2 예 '한'이나 '두'와 같은 반복되는 말에서 손뼉을 치고 싶다. / '한 발짝, 두 발짝' 부분에서 발을 쿵쿵 구르고 싶다.      3 ②, ③  
4 ②      5 ⑤      6 ④      7 ④  
8 예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시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 느껴진다.      9 도운      10 ④  
11 ①, ④      12 낭송

- 이 시에는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채점 기준**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고 싶은 부분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이 시를 읽으면 풀밭을 조심조심 걷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 아이는 풀꽃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발이 땅에 조금만 닿도록 하여 걷고 있습니다.
- 이 시를 읽으면 강아지풀로 자고 있는 동생을 간질이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 자고 있던 동생이 깰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 조금 놀라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것이 어울립니다.
- '으르렁 드르렁 / 드르르르 푸우-'는 아버지께서 코를 고는 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 채점 기준** 아버지께서 잠에서 깨시지 않고 꼭 주무시기를 바라는 아이의 마음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이 시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매우 크다고 표현한 것이지 시 속 인물이 사자를 본 것은 아닙니다.
- 이를 빼야 하는데 아파서 눈물이 먼저 난다는 뜻입니다.
- 아이는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시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합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4~5쪽

- 1 ④      2 민서      3 예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읽고 싶다.      4 ⑤  
5 예 아기 새는 발이 작아서 풀꽃을 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③      7 ⑤  
8 (3) ○      9 예 감기에 걸리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주무시는 어머니 대신 빨래를 정리한 적이 있다. 그 때 어머니께서 꼭 주무시고 감기가 빨리 나으시기를 바랐다.      10 치과      11 예 친구야, 이를 빼는 것이 무섭겠지만 힘내. 나도 작년에 이를 빼 보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지 않아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든.      12 ③, ⑤

- 시 속 인물은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고 싶어서 친구가 있는 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 채점 기준** 주고받으며 읽기,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기,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읽기 등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시의 내용으로 보아 풀꽃을 밟을까 봐 조심조심 걷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채점 기준** 제시된 정답 이외에도 '아기 새는 발가락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풀꽃을 피해 걷기가 더 편하기 때문이다.' 등 아이의 마음과 관련지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시 속 아이는 풀꽃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사자 울음소리처럼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아이는 피곤한 아버지께서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 채점 기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한 일이나 피곤한 가족을 걱정하면서 한 일을 떠올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시 속 인물은 이를 빼러 치과에 갔습니다.
- 채점 기준** 치과에서 이를 뽑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시 속 인물의 마음을 고려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이 시 속 인물은 딱지 따먹기를 하면서 다른 아이가 자신의 딱지를 칠 때마다 딱지를 빼앗길까 봐 조마조마해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 2 자신 있게 말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6~7쪽

- 1 ③      2 나      3 예 수업 시간에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에 대해 발표할 때에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4 자신의 꿈 등      5 ⑤      6 (3) ○  
7 ⑤      8 ②, ⑥      9 ①      10 ⑤  
11 예 자동차에 동물 감지 센서를 부착한다. / 나무를 심어서 고라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충분히 준다.  
12 책의 띠지

- 그림 ㉠에서 여자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며 자신 없는 태도로 발표했습니다.
- 그림 ㉡에서는 발표를 듣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림 ㉢에서는 제대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 채점 기준** 자신 있는 태도로 또박또박 발표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남자아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남자아이는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한 뒤에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표했습니다.
- 그림 속 남자아이처럼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말하는 사람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일기 쓰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허리를 똑바로 펴고 발표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들어야 합니다.
- ①번 친구는 턱을 괴고 친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③은 ③번 친구, ④는 ④번과 ⑤번 친구에게 할 말로 알맞습니다.
-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채점 기준** 동물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책의 띠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8~9쪽

- 1 ④      2 ③      3 예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리지 않고 자신 있는 태도로 또박또박 말해야 해.  
4 ②      5 예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여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해서 친구들도 이해하기 쉬웠을 거야. 6 ③  
7 ②      8 ⑤      9 훑훑 날아서 찾길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등 10 ③, ④, ⑤  
11 ③, ④      12 예 무지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비늘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인상 깊어서 『무지개 물고기』의 띠지를 만들고 싶다.

- 심장이 쿵쿵쿵, 온몸이 화끈화끈, 숨이 킁킁 막히고 머릿속은 새하얘졌다고 했습니다.
- 링링처럼 더듬더듬 발표하면 듣는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 채점 기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링링에게 말하듯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남자아이는 수의사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 채점 기준**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봅니다.
-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또 눈은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 숲 한 가운데에 넓은 찾길이 생겨 동물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 두꺼비가 한 말을 살펴봅니다.
- 넓은 찾길이 생겨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긴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 책의 띠지를 만들 때에는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쓰고 기억나는 그림을 간단히 그립니다.
- 채점 기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과 그 책을 소개하고 싶은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마음을 나누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10~11쪽

1 ②      2 ④      3 ④      4 ①

5 ㉠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때

6 질투 날 것이다. 등      7 ②      8 ㉡

9 (1) ㉠ 슬프다. (2) ㉡ 기분이 풀린다.

10 마음을 직접 나타내는 말을 찾아 본다. /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그런 마음이 든 상황이나 까닭이 나타난 부분을 살펴본다. 등      11 ④

12 ㉢ 자신 있다. / 만족스럽다.      13 ㉡

- 1 새 옷을 선물받으면 기쁜 마음이 들 것입니다.
- 2 ‘슬퍼요.’는 별 ④, ‘화나요.’는 별 ⑥, ‘즐거워요.’는 별 ②, ‘부끄러워요.’는 별 ⑤에 어울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3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마다 친구들에게 기분을 물어보십니다.
- 4 선생님의 말을 통해 테오에게 동생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5 **채점 기준** 행복한 마음이 드는 상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릴리는 테오에게 여동생이 생겨 질투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 7 ‘질투 나다.’는 ‘샘나다.’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 8 친구들에게 방울토마토 자랑을 하려고 하였지만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 9 ‘나’는 친구들에게 방울토마토 자랑을 하려고 하였으나 친구들이 관심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 10 **채점 기준** 글에서 인물의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뉘우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 12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는 인물의 표정과 한쪽 손을 허리에 올린 몸짓을 통해 자신 있는 마음과 만족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12~13쪽

1 ①      2 ㉠ 화나요      3 ③

4 ④      5 ㉡      6 ㉢ 즐거울 거야. 내가 아빠와 운동을 할 때처럼 말이야.      7 ㉡

8 ㉡

9 ㉢ 숙제를 잘해서 칭찬받았을 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10 ㉡

11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등

12 ㉢ 이제 학교에서 너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퍼. 우리 자주 연락하자.

- 1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을 찾아 봅니다.
- 2 얼굴을 찌푸린 표정과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몸짓을 통해 화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3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웃는 표정을 하며 폴짝폴짝 뛰는 동작에서 즐겁고 신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4 선생님께서 테오에게 여동생이 생겼다고 말하자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 5 친구가 나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면 질투 날 것입니다.
- 6 **채점 기준** 자신에게 동생이 생긴다면 어떤 기분일지, 그런 기분은 언제 느낄 수 있는지 떠올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아영이는 자신의 이름에 있는 ‘영’ 자에다 하나, 둘, 셋을 붙여 ‘한영이, 두영이, 세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 8 ‘내 생각이 뽀히니까 기분이 좋아요.’라는 말을 통해 아영이의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 9 **채점 기준** 아영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그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기분과 함께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길을 잃으면 겁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 11 아이쿠는 길을 잃었을 때에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 12 **채점 기준** 친구가 전학을 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일지 떠올려 지현이의 표정과 몸짓에 알맞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말놀이를 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14~15쪽

- 1 ①      2 ③      3 ②  
4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 간다. 등  
5 ④      6 ⑤      7 주고받는 말놀이  
8 ①, ⑤      9 ⑤      10 ⑤ 동물원에 가면 사자  
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11 ④, ⑤      12 ①

- 1 친구들은 앞의 낱말 끝 글자와 뒤의 낱말 첫 글자가 같은 끝말잇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 2 ①은 말 전하기 놀이, ②는 주고받는 말놀이, ④는 콩지 따기 말놀이, ⑤는 첫 글자로 말 잇기 놀이를 하는 방법입니다.
- 3 앞사람이 ‘과일’이라고 말했으므로 ‘일’ 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해야 합니다.
- 4 **채점 기준** 콩지 따기 말놀이를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콩지 따기 말놀이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빈칸에는 ‘포근해’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 6 ⑤는 ‘소중한 것은’ 또는 ‘소중하면’과 같은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 8 이 노래는 묻는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숫자를 듣고 떠오르는 낱말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9 고구마는 채소 가게에서 파는 물건입니다.
- 10 **채점 기준** 말 덧붙이기 놀이 방법을 알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를 반복한 다음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덧붙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군만두와 찐만두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왕만두는 만두의 크기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 12 빈칸에는 ‘지붕이나 산 등의 꼭대기’라는 뜻의 ‘마루’가 들어가야 어울립니다. ‘마중물’은 ‘뽕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 ‘미리내’는 ‘은하수’, ‘불가심’은 ‘물 등을 머금어 불의 안을 깨끗이 씻음.’, ‘해거름’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를 뜻하는 토박이 말입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16~17쪽

- 1 (1) ㉠ (2) ㉡      2 ①  
3 ⑤ 콩이 콩콩 튀어 콩나물      4 ②  
5 (1) ㉠      6 ⑤ 높다 높다 미끄럼틀이 높다  
7 ⑤ 삼각형 / 형, 나, 동생 삼 형제  
8 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다. /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다. 9 ③  
10 주연      11 ③      12 ①, ③, ④

- 1 소리 내어 읽으면서 낱말의 소리와 뜻이 나뉘 이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 2 ‘살살 달래라 달래’ 부분을 통해 달래의 이름이 지어진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 3 **채점 기준** 콩나물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생각해 이 노래의 형식과 같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앞뒤 친구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5 ‘높다 높다’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높다’와 어울리는 몸짓을 하며 읽어야 합니다. (2)는 ‘깊다’, (3)은 ‘넓다’와 어울리는 몸짓입니다.
- 6 **채점 기준** ‘높다’와 관련된 낱말을 떠올려 ‘높다 높다 ○○이/가 높다’와 같은 형식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채점 기준** 주고받는 말놀이의 방법을 알고 숫자 3과 관련 있는 낱말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채점 기준**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친구들이 사과와 수박, 복숭아를 말했으므로 첫 번째 친구가 과일 가게를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0 수박은 그림 속 친구가 이미 말한 과일이므로 다시 말하면 안 되고, 시장은 과일 가게에 포함되는 낱말이 아닙니다.
- 11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 다섯을 셀 때까지 말을 덧붙이지 못하면 다음 친구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 12 참치김밥과 멸치김밥, 소고기김밥은 재료에 따라, 삼각김밥은 모양에 따라, 꼬마김밥은 크기에 따라 김밥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5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18~19쪽

- 1 다희      2 (1) ㉠ (2) ㉡      3 ㉢  
4 (1) ㉡ (2) ㉠      5 ㉠  
6 예 텔레비전에서 식탁까지는 열 걸음밖에 안 걸린다.      7 ㉢  
8 (1) 맞히고 → 마치고 (2) 같다 → 갔다  
9 ㉢      10 우리 반 친구들은 의자에 반듯이 앉아 책 읽는 것을 잘 듣고 있었다.      11 ㉠, ㉤  
12 (3) ○

- 1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면 글을 읽을 때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 2 ‘시키다’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는 뜻이고, ‘식히다’는 ‘더운 기가 없어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 3 친구들은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쓸 때에 헛갈렸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5 ‘학교 수업이 끝나고’라는 뜻의 문장이므로 ‘맞히고’를 ‘마치고’로 바꿔 써야 합니다.
- 6 **채점 기준**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은 동작을 뜻하는 ‘걸음’을 넣어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진주가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잘못 써서 미호는 편지를 읽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8 학교가 끝나고 난 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게 ‘맞히고’를 ‘마치고’로 바꿔 쓰고, 놀이터에 다녀오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게 ‘같다 와서’를 ‘갔다 와서’로 바꿔 써야 합니다.
- 9 ㉢의 ‘반드시’가 잘못 사용한 낱말입니다.
- 10 **채점 기준**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로 ‘물건이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다.’라는 뜻의 ‘반듯이’로 바꿔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앞의 두 문장은 첫인사, 나머지는 전하고 싶은 말에 해당합니다.
- 12 하민이는 도서관에 갔을 때 소원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20~21쪽

- 1 ㉠      2 (1) ㉡ (2) ㉠  
3 예 받아쓰기를 할 때에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잘못 써서 틀린 적이 있다. / 동생이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잘못 써서 바르게 알려 준 적이 있다.  
4 (1) ㉡ (2) ㉠ (3) ㉢ (4) ㉤      5 (2) ○  
6 혜수      7 ㉤      8 (1) ㉡ (2) ㉠  
9 (1) 바칩니다 (2) 맞습니다  
10 예 우리들을 위해 매일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11 ㉡  
12 한결 씩 / 한결이가 등  
13 예 아연이에게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서 재미있었고 다시 함께 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 2 문이나 서랍 등이 다른 것에 의해 닫아졌을 때 ‘닫히다’라고 하고, 몸의 어느 부분을 맞거나 부딪쳐 상처가 났을 때는 ‘다치다’라고 합니다.
- 3 **채점 기준**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잘못 쓰거나 잘못 쓴 것을 고쳐 주었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1)의 그림은 ‘있다가’의 뜻과 관련 있는 그림입니다.
- 6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맬 때는 ‘깎다’라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 7 ‘나’와 친구들은 은서가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 나게 글을 읽어서 좋아했습니다.
- 8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고, ‘갔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 9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께 정중하게 드리다.’라는 뜻이고, ‘맞다’는 ‘문제의 답이 틀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 10 **채점 기준** 제시된 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올림’은 편지를 받을 사람이 웃어른일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 13 **채점 기준** 친구와 다투었던 일, 함께 놀았던 일, 도움을 받았던 일 등을 떠올려 그때의 어떤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싶었음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차례대로 말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22~23쪽

- 1 ④      2 밤 열두 시, 오후, 아침 3 ㉠  
4 ③      5 ①, ②, ③  
6 아침에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삼켰다.  
7 ④      8 (1) ○      9 어느 날      10 ④  
11 ④, ⑤  
12 일어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쓴다. 등

- 1 여자아이가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아서 남자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 2 각 문장의 처음 부분에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 3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통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 → 오후 → 밤 열두 시’의 순서로 일이 일어났을 것이므로 아침에 일어난 일인 ㉠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 4 배가 고픈 호랑이는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를 삼켜 버렸습니다.
- 5 ‘밤, 아침, 저녁’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호랑이와 소금 장수는 이 글의 등장인물입니다.
- 6 **채점 기준** 제시된 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까만 아기 양은 눈처럼 하얀 털을 갖기를 바라고 있어서 양치기 할아버지께 하얀 털실로 스웨터를 떠 달라고 했습니다.
- 8 글 ㉡에서 까만 아기 양과 폴로는 비가 내릴 것을 양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 9 글 ㉡에서 일이 일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어느 날’입니다.
- 10 아기 돼지가 집 안을 어질러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엄마 돼지가 보고 화를 내자 아기 돼지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고, 잠시 뒤에 완성된 그림을 엄마 돼지에게 보여 드리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③ → ② → ① → ④)

- 12 **채점 기준** ‘나의 미래 일기’의 ‘일이 일어날 때’를 펼친 면에 일어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쓴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24~25쪽

- 1 ㉠      2 ③      3 신데렐라는 호박 마차를 타고 궁전에 갔다.      4 차례를 나타내는 말은 잘 사용했지만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등      5 ④  
6 기름 장수와 소금 장수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다. 등  
7 ⑤      8 동굴 속  
9 예 이야기의 내용에 어울리게 몸짓을 하거나 목소리를 다르게 한다.      10 ③  
11 ㉡ → ㉠ → ㉢  
12 예 아침에는 영화관에 가서 보고 싶던 만화 영화를 보고, 오후에는 이모네 집에 가서 사촌 언니들과 놀고 싶다.

- 1 갖고 싶은 장난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 2 여자아이가 「신데렐라」를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남자아이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3 오후에 신데렐라는 호박 마차를 궁전에 타고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 4 **채점 기준** 잘한 점에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쓰고, 잘못된 점에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튿날 아침 → 점심때 → 며칠 뒤’의 차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6 **채점 기준** 제시된 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할아버지께서 이튿날 아침에 하신 일을 찾아 봅니다.
- 8 할아버지는 동굴 속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새 하얀 양들을 찾았습니다.

- 9 **채점 기준** 제시된 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겪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③의 내용은 알맞지 않습니다.

- 11 제시된 내용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보아, ㉡ → ㉠ → ㉢의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 12 **채점 기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일이 일어나는 순서에 맞게 문장으로 나타냈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친구들에게 알려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26~27쪽

- 1 가      2 ①      3 예 자동차 모양이고, 앞  
쪽에 나 있는 구멍에 연필을 넣으면 자동으로 연필  
을 깎을 수 있어.      4 ㄹ      5 다르기  
6 ①      7 (3) ×      8 ⑤  
9 (1) 이베 (2) 물고 (3) 강무레      10 ①, ⑤  
11 진아      12 ㄷ

- 1 새로 알게 된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은 그림 가입니다.
- 2 그림 나 의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소중한 꿈 인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 3 **채점 기준** 연필깎이의 모양이나 사용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옛날 텔레비전은 다른 방송을 보려면 텔레비전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의 장치를 손으로 돌려야 합니다.
- 5 옛날 텔레비전과 옛날 라디오가 요즘 사용하는 물건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 6 옛날 텔레비전과 옛날 라디오는 요즘 것과 모양과 사용 방법 등 많은 것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①과 같은 제목을 써야 글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 7 물건을 설명하는 글의 제목에는 글을 쓴 사람보다는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 8 욕심 많은 개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다른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개가 물고 있는 고기를 빼앗으려고 쫓는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강물에 떨어뜨렸습니다.
- 9 ㉠‘입에’와 ㉡‘강물에’는 앞말의 받침이 뒤에 오는 ‘ㅇ’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져 소리 납니다. ㉢‘물고’는 글자와 소리가 같게 납니다.
- 10 ‘국어’는 [구거]로, ‘먹이’는 [머기]로 소리 납니다.
- 11 진아가 내 몸에 꼭 맞는 의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12 자리가 바뀔 때마다 의자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28~29쪽

- 1 소중한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 잃어버린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 새로 알게 된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 친구가 잘 모르는 물건을 설명하는 상황  
2 ①, ⑤      3 ㄷ      4 ㄹ      5 ①, ⑤  
6 옛날 텔레비전, 옛날 전화기      7 ⑤  
8 「연필을 찾습니다」 등 9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다른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등  
10 ㉠, ㉢      11 민아      12 ⑤

- 1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중에서 두 가지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민수가 잃어버린 모자는 노란색이고 오리가 그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 3 민수는 노란색이며 오리가 그려져 있다고 잃어버린 모자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4 이 글은 민속 박물관에서 보고 새로 알게 된 물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5 옛날 라디오는 텔레비전보다 작은 크기(크기)에 동그란 장치를 돌리면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사용 방법)
- 6 민속 박물관에서 요즘과 다른 물건인 옛날 텔레비전과 옛날 전화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 7 자신이 설명하는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8 **채점 기준** 연필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욕심 많은 개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다른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 10 ㉠‘구름이’는 [구르미]로, ㉢‘길에’에 [기레]로 소리 납니다.
- 11 민아가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만 말하였습니다. 하니가 말한 낱말은 모두 글자와 같게 소리 나고, 현수가 말한 낱말 중 ‘물건과’도 글자와 같게 소리 납니다.
- 12 자신이 발명하고 싶은 물건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이므로 친구들이 사용해 보지 못한 물건입니다.

## 8 마음을 짐작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30~31쪽

1 ③      2 ④

3 예 비 오는 날에 학교에 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경험이다. 옷이 젖기도 했고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서 매우 속상했다.

4 상추가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기 위해서이다. 등

5 ④      6 (1) ○      7 ⑤      8 ⑤

9 ㉠ → ㉢ → ㉡      10 ㉠, ㉢

11 (1) 그림 가 (2) 그림 나      12 ④

- 2 학교에서 달리기를 할 때 신발이 벗겨져서 ‘나’는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글에 달리기에서 일 등을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3 **채점 기준** ‘나’와 같이 속상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등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채점 기준** 제시된 답과 같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나’는 상진이가 축구공을 찾으러 텃밭에 들어가서 상추를 발로 밟은 것을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 6 빈 우유갑에 물을 떠서 상추에 부어 준 ‘나’의 행동과 ‘속이 상했다’는 표현을 통해 상추를 아끼는 마음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7 “야호!”, “하늘로 봉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참 뿌듯했다.”에서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뿌듯해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8 ‘나’는 낮잠을 자고 오후 3시에 일어나니 배가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9 ‘나’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까 봐 긴장되고 걱정이 됐으며, 약을 먹을 때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낮잠을 잔 뒤에는 밖에서 놀고 싶어졌습니다.
- 11 그림의 내용으로 보아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림 가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림 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12 남자아이는 도시락을 들고 웃는 표정으로 걷고 있습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32~33쪽

1 ④

2 예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을 때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3 ⑤

4 ①      5 텃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 등

6 ㉢      7 ②      8 ④

9 (1)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참 뿌듯했다. 등 (2) 예 뿌듯한 마음, 기쁜 마음

10 ④      11 ⑤

12 예 오후 2시에 연못으로 가서 금붕어를 보았는데 금붕어들이 놀라서 흩어지는 것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오후 4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찾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 드렸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 1 은아는 친구가 아끼는 색연필을 떨어뜨려서 미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2 **채점 기준** 미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①에는 떨리는 마음, ②에는 기쁜 마음, ③ 흥분한 마음, ④에는 신나는 마음 등이 듭니다.

- 4 자신이 상추를 밟은 것을 알고 상진이는 멋쩍게 웃었으며 상추에 물을 주는 ‘나’를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 5 **채점 기준** 상진이에게 텃밭에 들어가 상추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거나 텃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에는 상진이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 7 인물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통해 인물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 9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외에도 “야호!”, 하늘로 봉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등에서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나’는 글 나에서 쓴 약의 맛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 12 **채점 기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넣어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게 이야기를 꾸며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34~35쪽

- 1 ③      2 ①      3 (1) ㉠ (2) ㉡  
4 ②      5 예 귀여운 새가 높은 나무에서 신나게 노래한다.      6 예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7 먹이, 생김새      8 참나무 진 9 초현  
10 ⑤      11 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장기려 선생님을 닮아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12 ⑤

- 1 ㉠ 문장은 ‘주룩주룩’과 같은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비가 내리는 모습을 더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 3 거북선을 꾸며 주는 말에는 ‘튼튼한’이 어울리고, 구름을 꾸며 주는 말에는 ‘높이’가 어울립니다.
- 4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꾸며 주는 말에는 ‘둥실둥실, 뚱뚱, 높이’ 등이 있습니다. ②의 ‘첨병첨병’은 큰 물체가 물에 자꾸 부딪치거나 잠기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①의 ‘깔깔깔’, ③의 ‘신나게’, ④의 ‘알록달록한’, ⑤의 ‘노란’이 꾸며 주는 말입니다.
- 5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외에도 ‘친구가 커다란 그물로 즐겁게 물고기를 잡는다.’, ‘강아지가 폴짝폴짝 뛰다.’ 등의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김이 나는 모습을 꾸며 주기에 알맞은 말은 ‘모락모락’이 대표적입니다.
- 7 이 글은 수컷 사슴벌레의 생김새와 먹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8 수컷 사슴벌레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는 참나무 진이라고 했습니다.
- 9 수컷 사슴벌레는 큰턱 옆에 더듬이가 있고, 더듬이로 나뭇진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껍데기 속에 얹은 속 날개가 있습니다.
- 10 이 글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장기려 선생님의 따뜻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11 **채점 기준** 장기려 선생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제시된 내용은 ‘잘바닥잘바닥하다’라는 낱말의 뜻입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36~37쪽

- 1 꾸며 주는 말      2 ②, ④, ⑤  
3 예 커다란 수박이 있다.      4 ①  
5 수컷 사슴벌레는 큰턱을 가지고 있다. 등  
6 큰턱      7 ㉠      8 ⑤  
9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고 사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이다. 등      10 ③      11 (2) ×      12 서준

- 1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어 그 뜻을 자세하게 해 주는 말을 꾸며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 2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느낌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3 **채점 기준** 제시된 답 외에도 ‘동그란 수박이 있다.’, ‘수박이 맛있게 보인다.’ 등의 문장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말이 없는 문장은 ①입니다. ②에는 ‘매우’, ③에는 ‘세계’, ④에는 ‘푸른’, ⑤에는 ‘새’가 꾸며 주는 말입니다.
- 5 **채점 기준** 글 ㉠은 수컷 사슴벌레의 생김새에 대해 설명한 글로, 제시된 답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한 수컷 사슴벌레가 큰턱으로 상대를 꼭 잡고 번쩍 들어 올리면 힘겨루기가 끝이 납니다.
- 7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V보다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습니다. ‘.’ 뒤에는 ∨를 하고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 ‘∨’를 ㉡ ‘V’보다 길게 띄어 읽습니다.
- 8 ‘나는 장기려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장기려 선생님이 쉬지 않고 밤새 환자들을 보러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 9 **채점 기준** 제시된 답과 같은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사람들이 장기려 선생님을 ‘바보 의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장기려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 12 ‘주렁주렁’은 열매 등이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공을 차는 모습을 꾸며 주는 말로 알맞지 않습니다.

## 10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38~39쪽

- 1 년 할 수 있어      2 ④      3 ①  
4 줄넘기가 잘 안되어서 등      5 ④  
6 ⑤      7 ①, ④, ⑤  
8 예 과자를 먹고 나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어때?      9 ①  
10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 민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 등      11 ⑤      12 ④

- 이 노래에서는 “넌 할 수 있어.”라는 따뜻한 말을 말해 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넌 할 수 있어.”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말입니다.
  - 서로의 기분을 생각하며 먼저 사과하고, 친구가 괜찮은지 살펴봐 주어 친구들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재희는 줄넘기가 잘 안되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 현수는 재희의 상황을 살피고 속상해하는 재희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 재희는 현수가 자신이 속상해하는 것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어 속상한 마음이 풀렸을 것입니다.
  -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대화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자신이 듣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하며 듣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 8** **채점 기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내용을 고운 말로 바꾸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지석이가 물고 가던 공이 민지가 찬 공과 부딪치는 바람에 민지가 공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지석이는 민지가 넘어지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 민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지석이를 보고 지석이가 미안해하는 마음이 느껴졌을 것이고, 그런 지석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 글쓴이는 친구에게 고운 말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40~41쪽

- 1 ③      2 ④  
3 예 그림을 망치게 해서 정말 미안해!  
4 ①      5 지현  
6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등  
7 ④      8 ②, ④      9 (2) ○  
10 예 서영이가 지나가다가 내 필통을 떨어뜨려서 색연필이 다 부러졌는데 서영이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11 ⑤  
12 예 교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시끄러워!”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음부터는 친구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용히 이야기하면 좋겠어.”라고 고운 말로 말해야겠다.

- 재희는 열심히 그린 그림을 망쳐서 속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 채점 기준** 재희의 속상한 기분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재희는 현수가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먼저 알아 주어 고마웠을 것입니다.
- 현수와 재희는 서로의 기분을 생각하며 대화했기 때문에 즐겁게 대화할 수 있어서 사이가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 채점 기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어린이 태권도 대회에서 상을 받은 여자아이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을 하면 여자아이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 지석이는 넘어져서 속상하고 부끄러울 ‘나’의 기분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을 담아 사과했고, ‘나’는 지석이가 미안해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속상한 기분이 풀렸을 것입니다.
- 채점 기준** 가족이나 친구와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했던 경험을 떠올려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채점 기준** 고운 말을 쓰지 않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경험과 그때에 써야 할 고운 말을 생각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국어 활동 |

42~43쪽

- 1 독      2 ⑤      3 수아      4 ②  
 5 ㉠ 수박을 가져다준 꼬마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6 (1) ㉠ (2) ㉡  
 7 ①      8 ㉠ 점잖은 표정      9 ⑤  
 10 보성이가 읽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 보여서 등  
 11 (1) ① (2) ②  
 12 ㉠ 기쁜 목소리로 밝게

- 1 농사꾼은 밭에서 큰 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 2 이 글의 농사꾼은 밭을 일구며 착하고 순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3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농사꾼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할 몸짓으로 알맞은 것을 찾습니다.
- 4 꼬마가 아저씨에게 수박을 드리기 위해 찾아오자 아저씨는 당황해서 얼떨결에 수박을 받아 들었습니다.
- 5 딸기를 먹고 싶어 하던 꼬마에게 딸기를 주지 않은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저씨는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 6 꼬마는 아저씨와 수박을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에 아저씨께 수박을 드리기 위해 아저씨를 찾아왔고, 아저씨는 꼬마에게 딸기를 주지 못하고 혼자만 딸기를 먹어서 미안했을 것입니다.
- 7 젊은 개미가 입맛을 다시며 말하는 것을 들은 매미는 개미들이 자신을 잡아먹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8 한여름에 노래 부르기 위해 몇 년이나 어두운 땅 속에서 날개와 목청을 다듬는 매미를 설명하면서 점잖은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 9 여우는 이가 아파 영영 울고 있으므로 우는 듯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 11 ㉠은 『토끼와 자라』의 내용이고 ㉡은 『토끼와 자라』를 읽고 든 생각과 느낌입니다.

- 12 **채점 기준** 특별 치료를 받게 되어 기뻐하는 여우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전 단원 평가 | 국어 |

44~45쪽

- 1 원님 아버지가 독 속으로 빠져서 등  
 2 ⑤      3 ㉠ 발꿈치를 들고 독 안을 들여다보듯 고개를 들이미는 몸짓을 한다.      4 딸기잼  
 5 ⑤      6 ⑤      7 ⑤  
 8 ㉠ 입을 벌릴 수 없어 당황스럽다. / 드소토 부부를 잡아먹지 못해 아쉽다.      9 ⑤  
 10 (1) 내용 (2) 생각과 느낌      11 ②, ③, ④  
 12 ㉠ 입을 다물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다.

- 1 원님의 아버지가 독 속으로 빠져서 원님의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 3 **채점 기준** 까치발을 하고 독 안을 들여다보는 원님 아버지의 행동을 몸짓으로 알맞게 나타내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남은 딸기로 열심히 딸기잼을 만들었습니다.
- 6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딸기잼을 나누어 준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딸기잼을 나누어 준 뒤에 뿌듯함을 느껴서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 7 드소토 선생님은 여우에게 특별 치료 약을 한 번만 바르면 죽을 때까지 이가 안 아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8 **채점 기준** 새 이로 드소토 부부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입을 벌리지 못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을 여우의 마음을 짐작해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여우가 특별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므로 긴장되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 10 이야기를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이야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게 쓰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해 씁니다.
- 11 인물 카드를 만들 때에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을 쓰고, 인물의 모습을 그린 뒤에 인물의 특징을 씁니다.

- 12 **채점 기준** 드소토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입을 꼭 다물며 '호호호' 웃는 여우의 모습에 어울리는 표정을 썼으면 정답으로 합니다.